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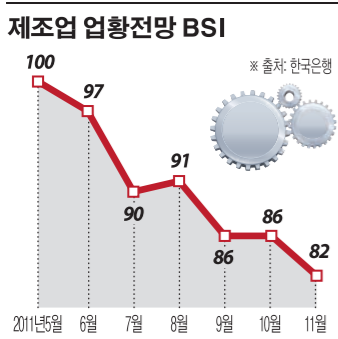
오늘의 마켓 지수
(오전 10시 30분 현재)

KOSPI	1,936.02	▲ 6.54
코스닥	493.07	▲ 2.48
환율		
· 달러	1,101.80원	▲ 3.10
· 엔	1,407.38원	▲ 47.93
· 유로	1,562.34원	▲ 3.17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03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제270호



제조업 공공 얼어붙나 내달 업황BSI 82로 2년3개월만에 최저

기업들의 업황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BSI는 전달보다 4포인트 내린 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80을 보인 뒤 2년3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의 업황전망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8월(91)까지만 해도 90대를 유지했다.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염려가 커지면서 9월(86)부터 80대로 내려앉았다.

BSI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 잣대로 실물통계인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한은 이성호 기업통계팀 차장은 "기업들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향후 전망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관적인 전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 더 많이 늘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에스오일 감사위 독립성 논란

올 주총서 소액주주 62% 반대 불구 대주주측 임원 선임

감사가 경영 관여하는 임원 겸임... '편법' 지적

에스오일이 대주주 측 현직 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대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오일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3명과 기타 비상무이사인 석태수 한진 대표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한진 석 대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비상무이사 직함으로 에스오일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점

이다.

현행 상법 상 기타 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 결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해 제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다. 또 기타 비상무이사 직함은 감사위원 자격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 석 대표를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정기주주총회 출석 주주수 중 8778만주였다. 또 출석한 소액주주 주식은 최대주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3940만주)와 2대 주주 한진에너지(3198만주)를 제외한 1640만주다.

이날 석 대표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상법에 따라 아랍코의 3% 초과지분이 의결권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한진그룹 측과 소액주주 간의 표결로 진행됐다. 결과는 한진에너지 측의 주식이 표결 정족수의 절반을 넘겨 석 대표가 S-OIL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날 소액주주 출석 주주수 중 62%에 이르는

1028만주가 무더기로 석 대표의 감사위원 선임에 반대했다. 이번 반대표는 지난해 한진그룹 측 인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나온 반대표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는 S-OIL이 해마다 고객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측 인사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면서 감사도 맡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액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S-OIL 측은 "석태수 대표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유성 기자 hyunyo0214@



한·미 FTA 대차... 전열 가다듬는 여야
여야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최고위 임명무노진환 기자 darkroom519@



여야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최고위 임명무노진환 기자 darkroom519@

약값 일괄인하 결국 정면충돌

보건복지부가 제약업체의 반대에도 기존의 일괄약가인하안을 거의 원안대로 확정·발표함에 따라 제약업체에 강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강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1월 1일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부분의 의약품을 특약만료 전 수준의 53.55%까지 일괄적

인하 기준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에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약가인하 시기를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인하 폭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개편안이 거의 그대로 고시됨에 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고시와 관련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약업체가 우려해 온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일 입안예고 업계 행정소송 검토

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하안에서는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오리지널 의약품(70%)과 제네릭 의약품(59.5%)의 약가는 우대된다.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의 약가도 우대한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신규등재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제약업체는 이번 약가인하로

업계는 그러나 기존 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여전히 100%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제약업체와 대화를 통해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고시대로라면 제약업체는 대규모 인력 및 품목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 '필수약품'의 경우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업계의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31일 고시된 복지부의 인하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11월 2일계 사장단 회의를 거쳐 일괄약가인하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가입비 없는 후불제 이통 나온다

MVNO 한국케이بل텔레콤, 기본료도 5500원으로 저렴

가입비가 없고 기본료가 5500원인 후불 요금제가 11월 1일 출시된다.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6% 저렴하다.

한국케이بل텔레콤은 오는 11월 1일 새로운 후불요금제 이동전화서비스(후불서비스) '티플러스(Tplus)'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KCT 측은 "티플러스가 통신

(Telecom)과 사람(People)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어울려서 소통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더해(Plus)준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KCT는 후불서비스 티플러스 론칭을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본료, 가입비, 약정기간이 없는 '3무(無)'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

간 중 표준요금제에 가입하고 월 30분 이상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내년 3월까지 월 기본료 전액을 할인해준다. 티플러스 후불서비스는 표준·정액·자율요금제 등 3종류로 구분된다. 이들 요금제는 별도의 가입비와 약정기간이 없고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각각 최소 23%에서 56%까지 저렴하다.

표준요금제는 월 기본료 5500원에 음성통화 초당 요금이 1.8원, 문자요금은 1건에 15원인 상품이다. 통화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음성통화와 문자를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정액요금제는 월 기본료 2만5000원에 250분의 무료통화와 250건의 무료문자를 제공한다. 초과 요금 기준은 표준요금제와 동일하다.

자율요금제는 월 기본료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음성통화와 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음성통화만 사용하는 경우 약 640분, 문자는 약 4545건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료 내에서 음성은 초당 5

금 1.3원, 문자는 건당 11원 기준으로 차감된다. 초과 요금 기준은 표준요금제와 동일하다.

KCT는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MVNO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동일한 통화 품질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선불 요금제를 먼저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오랜 기간 KCT와 기술 협의를 진행한 결과 KCT가 직접 영업전산-HLR(가입자 위치등록장치) 등 통신 설비와 지능망, 유심(USIM)카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MVNO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우 기자 acw@

오늘의 이투데이

팍스시니카, 축복인가 재앙인가 4면
중도 잃어버린 10년? 4면

<p>글로벌 우먼파워</p> <p>美 건강보험사 웰포인트 CEO 안젤라 브렐리 5면</p>	<p>CEO+</p> <p>서희권실 이봉관 회장 지독한 일사랑 10면</p>
---	---

KPGA 공식지정음료, KFDA 공식지정음료, 미국 수출, FDA 검사 통과

A* 한국알카리수주식회사
Korea Alkaline Water Co., Ltd.

내 몸이 기억하는 첫 번째 물,
알카리로 돌아가자!

오염이 없는 깨끗한 수
육각수 비율이 높고, 클러스터(물분자 집단)가 작은 수
미네랄이 함유된 몸에 좋은 수
pH 9.1 ~ pH 9.9 알카리 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환원력이 강력한 수

프리미엄 미네랄 알카리수 에이수!

우리는 인체를 산성화시키는 음식과 환경으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pH 9.1~9.9의 알카리 성분과 미네랄이 함유된 '에이수'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순수하고 건강했던 처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www.eisu.co.kr | Tel. 1588-9719

글로벌 불황... 소비마저 '꽁꽁'

글로벌 경제의 원동력인 소비에 먹구름이 끼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침체하고 이는 다시 경기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3분기 88로 전기보다 1포인트 악화됐다.

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같은 신흥국의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선진국의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닐슨의 소비자신뢰지수는 100이 하이먼 향후 수개월간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7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인도는 3분기에 전기에 비해 5포인트 하락, 사우디아라비아에 추월당했다. 중국도 하락했다.

유로존의 소비자신뢰지수는 프랑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유로존 최대 경제구역인 독일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유럽과 미국보다는 양호했지만 2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닐슨 조사, 소비자신뢰지수 악화 응답자 60% "지출시기 아니다"



뉴욕에 있는 K마트에서 한 여성이 쇼핑을 하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로 연말 대목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응답했고, 북미 지역의 응답자 3명 중 1명 꼴로 여유 현금이 없다고 대답했다.

닐슨의 벤카테시 발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고용 정책과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로 3분기는 변동성이 심했다"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경기가 침체됐다고 보는 등 소비자 사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심리 악화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대변해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조사 결과, 10월 실업률은 9.1%로 4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9만5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9월은 10만3000명이었다.

지난 3분기(7-9월) 미국 경제성장률이 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고용 시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조다단 바실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개인소비를 자극하려면 더 많은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소매업체들도 죽을 맛이다. 유니레버와 홀푸드같은 이른바 미국의 빅브랜드들은 그루폰, 리빙소셜같은 소셜커머스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루폰의 리 브라운 미국 판매 책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셜커머스의 사업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무슨 재밌는 얘기가... 김황식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이번엔 주식·펀드 수수료 압박

증권사 "인하 여력도 없는데..."

은행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도 불풍이 휘었다.

3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 분야의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15%여서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증권사의 입장이다. 다만 오프라

인 거래시 평균 0.5%의 주식수수료와 펀드수수료는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식매매수수료에서 매도시 거래세(농특세 포함) 0.3%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낮추지 않는 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경기 선행·동행지수 동반하락

산업활동동향... 각각 0.4%, 0.8% ↓

광공업은 시스템 반도체 수출로 증가

경기상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역시 전월대비 감소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시스템 반도체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는 종합주가지수, 기계수주액, 소비자 기대지수 등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건설기성액,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월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와 미국의 더블딕 우려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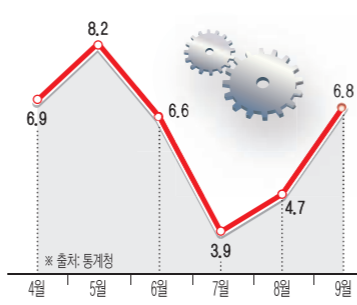
행정 등에서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4.6% 증가했다. 하지만 두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던 광공업 생산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6.6%), 자동차(-1.7%) 등에서 감소했지만 반도체 및 부품(7.3%), 비금속광물(7.2%) 등의 증가세로 인해 전월대비 1.1% 증가했다. 전년 동월에 대비해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라 6.8% 늘었다.

지난달 소폭 감소했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1.3%를 기록하며 0.9%포인트 상승했다. 재고 물량 역시 전월대비 0.2% 늘었다.

소매 판매는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5%)는 증가했으나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5.9%),

광공업생산 증감 추이 (단위: %)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2%)가 줄면서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면서 2.8%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금융·보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등의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 기기 등은 증가했지만 일반기계류, 정밀기기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2.0% 감소했다.

홍성일 기자 hsi@

전국 땅값 상승

11개월째 올라

전국 땅값이 11개월째 올랐다. 시통합 이후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전국 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월대비 0.09%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단,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 2008년 10월에 비해 1.35%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과 인천이 0.05%, 경기 지역이 0.13% 올랐으며, 지방 역시 0.05~0.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지난 달 0.57% 올랐다. 시통합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절적 영향과 KTX 개통 호재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2위 역시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성산구로 집값 상승세에 따라 주거용지 가격이 급등하며 0.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기자수첩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발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16개 1차 품목 발표된 데 이어 29개 정점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정점품목 중에서도 데스크톱 PC와 두부, LED가 3대 정점 산업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길 바라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호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종별 실무회의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적합업종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중소기업 성장으로 집값 상승세에 따라 주거용지 가격이 급등하며 0.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소, 적합업종 목매지 말라



장효진 산업부 js62@

중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만약 동반성장위원회의 직권 조정으로 이면에 적합업종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말로 중소기업이 살 길이 적합업종 지정 뿐 인지 재고가 필요한 대책이다.

최근 LED산업포럼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상생협력 함의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LED 적합업종 판단 유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해 눈길을 끈다. LED산업포럼 관계자는 "LED

조명산업은 신성장동력 유망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확대에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한 적합업종 선정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합업종이라는 보호막에 안주하려는 쪽과 이를 걷어내려는 쪽의 반목과 갈등구도를 바로잡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흑백논리로 일관해 왔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적합업종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려고 보다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는 게 옳다.

故具斗會 에스코 명예會長 喪事時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鄭重한 弔意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護喪 李文浩

嗣 女子 具滋殷 子 壻 婦 張仁瑛 芝希 殷廷 金重民 哉希 李東範 데이빗 누네즈

이번에 저희 先親(綾城具公斗會) 喪事時에 바쁘신 중에도 鄭重한 弔意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慌忙中이오라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함을 罪悚人事를 드립니다.

人事말씀

二〇一一年十月三十一日

LS그룹 任職員一同

二〇一一年十月三十一日

우리 아이 1년 안에 금융박사 만들기 미래부자 Rich Child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돈과 금융 이야기



박중현 · 서목희 지음 | 272쪽 | 12,000원

- 경제·금융교육 3단계
- 유대인의 경제교육
- 부자의 자녀교육
- 어른이 되면 왜 수박이 싸지는 걸까?
- 돼지고기 가격이 자꾸 오르면 어떻게 될까?
-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 경기는 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걸까?
- 일본 지진은 지동차회사 주식과 무슨 관계일까?
-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무엇이 좋아지나?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 왜 그렇게 좋은 걸까?

공정위 'LCD담합' 과징금 업계 "능장조치" 강력반발

LCD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 시효(5년)를 넘긴 과징금 부과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능장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이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카르텔)했다며 19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했던 지난해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때의 과징금 1243억원보다 700억원 가량이 더 많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가 961억1000만원 △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옵트론스 285억3000만원 △치메이 이노텍스 15억5000만원 △중화픽처 테크닉스 29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9억7000만원 등이다.

삼성전자는 각국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실토

美보다 3년 늦게 부과 "법적시효 이미 지났다"

LGD '행정소송' 방침

(리니언스)해 한·중·일 3국 모두에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삼성전자에 이어 2순위 감면 대상인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651억원 중 50%를 면제받아 326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정위 사건 처리 시효인 5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 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LCD 제조 업체 모임인 '크리스탈미팅'을 개최해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과징금 처분을 마무리한 반면 한국 공정위는 미국보다 3년이 늦은 이달 말에서

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법률상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 신고를 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며 "법적 시효를 훨씬 초과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본 결정은 리니언스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LCD 업체들이 해외 경쟁국들의 조사 및 민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무책임한 정부" 농협 뿔났다

구조개편 6조 지원 약속... 4조만 내놓고 '나몰라라' 개혁무산 위기에 국회도 "농협법 재상정" 정부 압박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둘러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당초 정부는 농협이 요구한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출자)을 약속하고 경제부인과 금융부과 분리를 골자로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행 5개월을 넘겨두고 약속을 뒤집으면서 무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 4조원으로 잠정 확정된 사업구조 개편 지원 규모를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6조원으로 올려달라고 재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7월 말 "구조개편에 모두 27조42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중 6조원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예산안에서 농협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원, 현물출자로 1조원을 지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협 안팎에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협은 2017년까지 경제와 금융을 분리해 본연의 목적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협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기에 금융과 경제를 분리할 것을 요구. 농협에 대해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한 출연을 약속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난 3월 농협법을 개정한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조기에 신경분리를 추진하고도 정작 중요한 재정 지원은 줄었다"면서 "삭감된 지원금은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약속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6조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4조원 지원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도 논란거리다. 재정부는 내년 초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금융지주'에 이차보전액을 지원해주려 하고 있다. 은행·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라는 지원 취지를 살리고 금융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 측은 금융지주의 재무구조 약



화를 이유로 농협중앙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무책임성에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자칫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의원들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농협법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협도 찬성하고 있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지원금이 확보되지 못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의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주 기자 ahnkj@



美 때아닌 눈폭탄 뉴욕주 웨스트헤리스에서는 30일(현지시간) 소방 대원들이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등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 동북부 지역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몰아친 눈폭풍으로 25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3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기사 9면 웨스트헤리스/AP연합뉴스

스마트폰 2000만명 시대

놀이·업무·소통... 일상생활 '혁명'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하며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 3GS가 처음 보급된 지 2년이 채 안됐다.

국민 10명 중 4명, 경제활동 인구 2500만명 가운데 80%가 스마트폰 가입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 2000만명 돌파는 통신기기 판매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 휴대폰이 단순한 음성통화 수단이었다면, 스마트폰은 종합 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면서 놀이·업무·커뮤니케이션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변화시켰다.

반면 이를 선도하던 이동통신업계에는 '스마트폰 딜레마'에 빠진 매출구조로 양날의 칼 같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의 중심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급격히 이동한 결과다.

◇스마트폰 사용자, 사회 주역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면서 IT강국에서 스마트 강국의

면모가 뚜렷해졌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국민생활은 물론이고 기업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소통 창구가 넓어졌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만남과 친목을 온라인 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종합 문화 서비스로 자리매김 음성통화서 데이터 중심 변화 통신업계는 수익 악화 딜레마

선거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투표 독려 글이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는 등 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회의 주역이 됐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스마트워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큰 몫을 해냈다. 다양한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무실 개념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또 파워블로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프로슈머가 새로운 대중적 직업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 등 사생활 문제역시 스마트 시대의 화두다.

GPS와 기지국 정보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스마트폰의 강점이자 아킬레스건이다.

◇통신업계, 스마트폰 효과 끝났다 =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역시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했다. 스마트폰이 음성통화 매출은 감소시키지만 무선 데이터 매출은 상승시키는 등 양날의 칼로 영업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터 매출 증가세보다 음성통화 매출 감소와 투자비가 더 커 이익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증가할 수록 가입자 한명이 통신사에 내는 돈(ARPU:가입자당 매출)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 3분기에서 이같은 현상은 뚜렷해졌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531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7.2%, 전분기보다 19.4%가 각각 감소했다. 실제로 아이폰과 갤럭시S를 통한 스마트폰 효과가 끝난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하고 비싼 요금제와 과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통화 중 끊김 현상과 같은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의 못매를 맞았던 통신업계가 이번에 수익구조 측면에서 일회일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겨울까지 쾌적한 LG휘센 인버터 냉난방기

LG휘센 인버터 냉난방기 하나면 4계절 걱정 끝!

1등급 인버터 기술로 전기료는 내려가고 쾌적함은 올라갑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부담없이 쾌적한 바람을 누리세요

1등 바람은 에너지소비효율도 1등급입니다

에어컨 1500W 인버터 선택 (1) 무-유선 리모컨 (2) 9개월 고온냉동 (3) 4세 이하 어린이 안전 (4)

캠피언·마린보이 에어컨 특별무상점검 서비스

LG전자 휘센에어컨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 드립니다.

LG전자는 2011년 긴 여름으로 인해 에어컨의 사용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점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으며, 올해 설치된 캠피언과 마린보이 에어컨 중 일부 모델에서 "먼지날림" 현상이 발생된다는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터청소, 열교환기 청소 및 교체, 냉매점검 등의 "특별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는 LG휘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서비스 내용은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대상제품 : 2011년 설치된 캠피언 중형, 마린보이 개 세팅 • 적용기간 : 2011년 10월 31일 ~ 12월 31일까지 • 점검지역 : 동양권, 수도권(경남/경북/충청/강원/제주) 등

접수 및 문의처 : LG전자 서비스센터(www.lgservice.co.kr) 또는 LG전자 서비스 콜센터(1544-7777, 1588-7777)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1등바람 1등에어컨 LG WHISEN

■ 휘센 홈페이지: whisen.lge.co.kr ■ 문의처 : 지역번호 없이 1544-7777, 1588-7777 ■ 고객불만 상담 및 제안 : 080-023-7777

LG전자의 휘센 에어컨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팩스시니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제 누구도 중국을 '장밋빛'으로 보지 않는다

1부 중국 버블을 막아라

2부 중화시대 긴급 점검

3부 중국 경제 제대로 보자

- ① 차이메리카는 없다?
- ② 중국경제 견인차, 자동차 반도체 LCD
- ③ 통계로 본 중국 경제, 감춰진 진실
- ④ 계류인가 축복인가, 팍동산업
- ⑤ 국과 국, 빈부 격차
- ⑥ 잃어버린 10년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 ⑦ 마지막 기회의 땅, 내륙
- ⑧ 상상초월 지하경제
- ⑨ 중국 경제 이끄는 힘, 영 리더스 (상·하)

4부 7대 신흥 전략산업

중국 경제의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도성장 후 장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형 성장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거품이 터질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월가의 대표적 비판론자이자 '닥터뚝'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는 오는 2013-2014년에 경착륙에 빠질 것"이라면서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근거로는 심각한 자산거품 현상이 꼽힌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완전한 정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약 720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어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위안화 환율 절상까지 겹치며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9.1%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지만 전분기의 9.5%에서 둔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GDP 성장률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은행권은 10년에 걸쳐 부채 탕감에 주력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받는 1992-1999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지속해 주택대출 금 융기관의 파산을 초래하기도 했다.

중국도 그동안 수출 의존 경제로 성장해 왔다는 것도 문제다.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위기 극복 후 수입을 줄일 경우 중국 수출은 타격을 받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나 기업 수익성 등 미시경제 부문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사회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고도 경제성장에도 따른 계층간 격차 확대는 비경제적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지속적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를 없애기 위해 경제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중국 동남부의 쉬강닝 경제관리대 학원장은 "현실 문제를 경제성장의 부작용에만 연결시켜 잃어버린 10년에 억지로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전망"이라고 비난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닥터뚝' 루비니 교수의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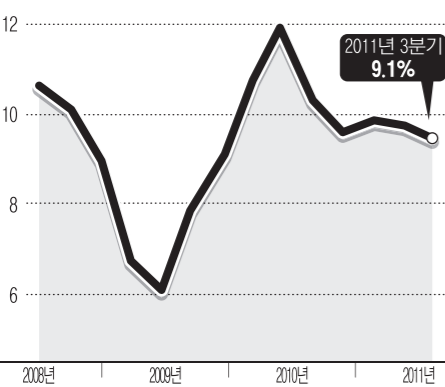
"2013-2014년 경착륙에 빠져 '잃어버린 10년' 들어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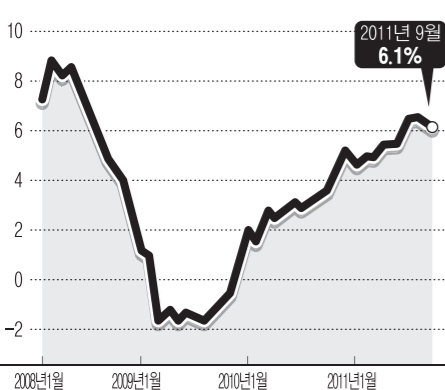
중국에 내년에 무력적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수출이 타격을 입어도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가하진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사진은 상하이항만 전경.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중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속도 줄이면 터지는 '13억 버스'

영화 '스피드'처럼 시한폭탄 장착 '성장 중단은 파국'

중국 경제가 일반적인 거품 수준을 넘어 '슈퍼 버블' 상태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지난해 '중국: 다가오는 슈퍼 버블의 대가'라는 제목의 분석을 통해 급부상한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끄떡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가격이 아닌 '슈퍼 버블(Superbubble)'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중국의 상황을 영화 '스피드'에 비유하며 "13억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정지하면 장착된 시한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13억명의 승객을 태운 '중국 버스'는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속 성장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파국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계속 낮게 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제 성장 막바지 과정에서 비만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상황과도

흡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는 2007년 점포가 2000개에 불과했으며 새로 개장하던 점포도 하루 평균 1.8개 꼴이었다. 지금은 미국에만 체인점이 1만개가 넘었고 하루에 새로 생기는 점포도 5.5개 꼴로 늘었다. 문제는 몸집이 커지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여전히 10%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성장이 지탱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수출이 25% 이상 급감하는 등 고성장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간섭조치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가 불안해 하는데... 중국만 "걱정마"

"자산거품 1970~80년대 다과 달라 수출 성장기여도 그리 크지 않아"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중국은 과도한 성장을 추구하고 지방정부 채무가 중앙정부 신용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인정하면서도 잃어버린 10년 답습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경제 낙관론자들은 중국에도 자산버블(거품)이 있지만 일본에서 1970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20년간 장기적으로 급등한 자산버블과 같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수도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한때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버블이 심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는 1985년 9월 플라자합정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일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는 미국으로부터 절상 압력을 받고 있지만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위협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어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 가운데 절반이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가공 수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10% 성장률의 2%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데뷔를 앞둔 신인 연예인

대박 매출을 꿈꾸는 쇼핑몰

신제품 출시를 앞둔 중소기업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정치인

이들에게는 '이슈'가 필요합니다

'이슈'를 잘 만드는 광고회사



“대중에 최상의 건보 서비스”... 발로 뛰는 ‘워커홀릭’

(일종독자)

글로벌 우먼파워

⑤ 안젤라 브렐리 웰포인트 CEO



잘 나가는 변호사에서 건강보험업계 최고의 최고경영자(CEO)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7년 안젤라 브렐리 웰포인트 CEO를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여성 50인' 1위로 꼽았다. 같은 해 경제전문지 포춘은 브렐리를 미국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소득에서 브렐리는 단연 돋보인다. 그는 2009년 407만달러를 벌며 미국 CEO 연봉 306위에 올랐다. 여성 기업인 중에서는 74위다. 브렐리는 경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2007년 웰포인트의 수장이 된 뒤 가입자를 3500만명으로 늘리고 연 매출 600억달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브렐리는 특히 발로 뛰는 경영인으로 유명하다. 보험상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당시 직원과 고객,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는 경우 법은 항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자 해결 도구로 연결됐다. 브렐리는 법학 공부를 결심한다. 1982년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브렐리는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한다.

잘나가던 변호사서 건강보험사 CEO 변신 보험관련 분쟁엔 고객 직접 만나 설득 나서 2007 WSJ '세계서 가장 주목할 여성' 1위에

그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워커홀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렐리는 1961년 7월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5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 벌이를 해야 했던 브렐리는 차에 타이핑하는 주석 사진 촬영 부스에서 첫 일을 시작했다. 브렐리는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하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브렐리는 텍사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경영을 전공하던 당시 특정한 결정을 해야 하

에 입학한다. 그녀는 법에 대한 지식이 경영에 필수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브렐리는 이후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로 옮겨 법률 회사에서 일하며 공공재정·합병·인수 부문을 담당했다.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사 블루크로스과 미국 비영리 의료 보험조합이었던 블루실드는 브렐리가 소속된 법률회사의 최대 고객이었다. 블루실드는 당시 경영에 변화를 가지고 민간 보험회사의 탈바꿈을 시도, 블루크로스과 합병했다. 이 합병의 중심에 있던 브렐리는 블루실드의 법적 고문을 맡았으며, 인수 후인 1997년 고문으로 임명된다.

블루실드를 인수하면서 여러 소송에 휘말린 블루크로스는 '미주리 보건재단'을 창립하고 1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단행한다. 미주리 보건재단의 골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최상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브렐리는 당시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던 미국 의료제도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인들로부터 미주리 보건재단 창립이 끝난 뒤 법률회사로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머무르기 하고 미주리 보건재단의 최고경영자(CEO)에 오른다. 웰포인트는 2002년 블루크로스를 인수, 2004년 미국 웰스캐어회사 인수와 합병한다. 브렐리는 당시 웰포인트의 법적 고문을 담당했다. 웰포인트 이사회가 지난 2007년 외부에서 마땅한 CEO를 찾지 못하고 내부로 시야를 좁인 것이 브렐리에겐 기회로 다가왔다. 브렐리는 "경영이란 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소신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브렐리가 있었다. 브렐리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웰포인트에서 4만 2000명의 직원을 이끌며 업계 최고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안젤라 브렐리(왼쪽) CEO는 보험료 인상 등 각종 난관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렐리 CEO가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주 보험료 39% 인상과 관련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오바마 건보개혁 표적된 웰포인트 지역시장 파고들어 업계 1위 성장

■ 브렐리 위기들과 해법은

출중한 리더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브렐리 CEO에게도 지난 2010년은 가혹한 시기였다. 유법발 재정위기로 탈 없는 회사가 없었던 해이기도 했지만 웰포인트는 '오바마발 폭탄'의 주인공이었다. 웰포인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제시한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으로 가장 많은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웰포인트는 4명의 유방암 환자들의 보험 계약을 취소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5월 라디오에 출연해 "모 보험회사는 여성 유방암 환자들을 보험 혜택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을 그만둬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보험 가입자 중 유방암 환자들 보험료 지금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정부가 생산성이 없고 미국인들의 관심사에 알맞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녀는 웰포인트가 지난 2009년 4명의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정 지급 여부와 관련해 취소한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지난 2009년 유방암 환자들에게 20억달러 가까이 보험료를 지급했다"며 언론의 비난에 반박했다. 웰포인트는 2010년 캘리포니아주 의료 보험료를 39%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족쇄가 됐다. 이에 대해 반대한 주 규제 기관은 웰포인트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료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렸다고 비난

- 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
- 1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금으로 대체)
 - 2 50인 이상 고용주, 직원들(사건제 근로자 포함)에 의료보험 지원 의무
 - 3 보험 가입 의무 지키지 않는 고용주 2000달러 벌금 부과
 - 4 보행사, 병력 있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불가
 - 5 매디케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연방빈곤수준3% 미만 건강보험 혜택
 - 6 고소득층(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상 임금) 추가 세금 부담(2.9%)
 - 7 고평가, 처방전 일인 혜택 확대
 - 8 건강보험 아예 낙태 수술 지원금 중지(개인 보험 제외)

했다. 브렐리 CEO는 웰포인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법률 전문가의 수업을 발휘, 발 빠르게 움직였다. 브렐리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거쳐 청문회에 출두해 보험료 인상이 치료 비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의료 보험료 인상률은 25%로 낮아졌다.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안은 여전히 난관으로 남아 있다. 2014년 시작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제껏 보험 가입자들을 제한했다. 보험사들은 빠르게 2012년부터 고급 상품인 프리미엄 보험을 통해 올린 이익의 최소 80%를 개인보험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브렐리는 그러나 기존 건강보험의 탈바꿈을 기대한다면서 "웰포인트가 오바마의 새 법안을 발판 삼아 지역 시장에서 든든한 기반을 형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ailey.jeoungeun@

중고차론, 현대캐피탈과 직접 상담하면 금리는 5%나 내려간다

ARS 1588-5330
www.hyundaicapital.com
현대캐피탈 스마트 폰 App.

현대캐피탈과 직접 상담

중고차론 금리 5% 인하
차량 무료보장 서비스
1년 1만km 연장 혜택(국산차 경우)

Hyundai Capital Autoplan
중고차론 금리를 5% 내리는 새로운 방식
현대캐피탈 다이렉트 중고차론

ARS 1588-5330
www.hyundaicapital.com
현대캐피탈 스마트 폰 App.

현대캐피탈과 직접 상담

중고차론 금리 5% 인하
차량 무료보장 서비스
1년 1만km 연장 혜택(국산차 경우)



1588-5330
www.hyundaicapital.com

* 현대캐피탈다이렉트 중고차론 은 제휴점 방문과 상담하는 상품입니다. 차사 상품 평균 5% 금리 인하인 상품이며,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열풍... 리비아 재건... IT·건설업 훈풍 기대감

■ 상장기업 4분기·내년 실적 전망

세계 '경제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업종이 화색을 나타낸 반면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IT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31일 이투데이가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공동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업종의 실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장주인 현대차의 경우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7% 늘어난 1조9183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글로벌 판매가 99만1706대로 9.6% 늘어나

분기 이후 9분기만이다. 영업손실에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 1320억원도 포함됐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전 분기보다는 17% 감소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주들 역시 순손실과 영업적자를 동시에 기록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삼성SDI·삼성테크윈 등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조리 40~70% 가량 줄었다.

그나마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삼성전자도 호황이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2.6%, 22.8%씩 감소했다.

황상현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D램 가격의 반등과 스마트폰 호조로 인해 3분기보다

4사 리서치센터장 업종별 전망

	황상현 미래에셋증권	신남석 동양증권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김지환 하나투자증권	
경제전망	2012년 GDP 4.20%	3.80%	4.60%	4.10%	
주요변수	대표 수출기업 마진압박 속 높은 시장 점유율 유지될 지가 관건	이익사이클 지표로 활용되는 12개월 예상이익 증감률 저점 확인 여부	미국 및 중국의 경제 상황 유럽 소비면 이슈	환율 변동성	
전기전자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점진적 반등	내년 반도체 가격 기초적 상승세	선진국 수요 회복	일본, 대만 감소로 반도체 호조	
자동차	수출 확대	내년 상반기 글로벌 신차 수요 확대	원화약세로 수익성 감소 리스크	글로벌 시장점유율 증가	
정유화학	중국 수요 모멘텀 지속	4분기 소비위축으로 실적회복 전망	중동불안으로 석유화학 고마진 유지	정제마진 개선+셀비투자 효과	
통신	LTE모뎀 불구 경쟁심화 부담	LTE모뎀 발생	LTE모뎀 발생	LTE모뎀 발생	
업종전망	철강	세계 조강생산량 증가 속 중국 건설 수요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철강수요 부진	내년 美中 정권교체 따른 경기반등 기대	원료투입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물류	백화점·할인점 완만한 성장	4분기 물동량 성수기 효과 미약	업황 호조 지속	업황 호조 지속	
조선	LNG선뿐만 아니라 일반상선도 독보적 지위 확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수주 증가	내년 3분기까지 선가회보, 선박발주 미흡	수주감소 우려	
건설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가능	국내외 건설경기 회복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 플랜트 수주도 경쟁력 강화	

현대차·삼성전자 제외 3분기 어닝쇼크 하이닉스·LG그룹계열사 곤두박질 '충격' D램가격 호전 영향 4분기 실적 상향 예상

먼저 매출액도 14.5% 증가한 19조9540억원을 나타냈다. 영업이익도 1조99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9% 증가했다.

현대차의 실적 개선은 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외부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태.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고 4분기까지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성장 둔화 속에서 경쟁심화되는 2012년 외부환경 변화 요인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현대차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남석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은 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황상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매출 85조3920억원, 영업이익 8조5000억원, 순이익 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의 실적 개선에 이어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보다 20% 내외 성장했으며 현대위아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1%, 91.8%씩 각각 늘었다.

반면 IT업종은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급감했다. IT업종 전체 3분기 영업이익은 42.7%가 줄었고 순이익은 외환손실까지 더해져 무려 67.7%나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은 2조2910억원, 영업손실 2770억원, 하이닉스반도체가 적자를 본 것은 지난 2009년 2

분기 이후 9분기만이다. 영업손실에는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 1320억원도 포함됐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전 분기보다는 17% 감소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주들 역시 순손실과 영업적자를 동시에 기록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삼성SDI·삼성테크윈 등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조리 40~70% 가량 줄었다.

그나마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삼성전자도 호황이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2.6%, 22.8%씩 감소했다.

황상현 센터장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D램 가격의 반등과 스마트폰 호조로 인해 3분기보다

주요기업 3분기 실적 (단위: 억원, %)

종목	2011년 3분기			전분기대비 증감률 (%)		
	매출액	영업 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순이익
CJ제일제당	17,513.33	1,653.58	270.78	11.50	66.17	-62.73
LG유플러스	23,820.12	949.58	565.72	4.24	57.44	60.42
S-Oil	78,066.36	3,688.56	628.64	-2.73	52.67	-73.59
KT&G	10,458.71	3,748.79	2,817.81	16.39	33.21	30.88
삼성전자	22,249.39	2,129.43	1,302.45	4.86	29.85	15.78
한국타이어	16,892.64	1,298.91		8.56	27.79	-
삼성전자	412,739.65	42,528.96	34,417.10	4.65	13.35	-1.84
현대차	189,539.63	19,947.66	19,183.40	-5.66	-6.21	-16.86
LG화학	58,858.90	7,243.20	5,116.26	3.26	-6.59	-18.07
SK텔레콤	40,648.01	5,314.49	3,838.87	0.89	-19.44	-17.52
삼성전기	19,289.70	689.11	649.25	14.70	-20.88	16.53
신한저축	80,885.41	9,694.28	7,041.85	135.77	-23.82	-30.00
POSCO	169,534.42	12,976.14	2,331.10	-0.55	-25.70	-83.01
OCI	10,838.08	2,526.80	1,718.20	-7.45	-30.27	-42.04
현대백화점	3,434.57	834.19	1,106.07	2.94	-33.95	7.57
삼성SDI	14,476.67	430.10	999.57	7.28	-51.80	5.42
하나금융지주	88,170.24	2,965.87	2,053.18	359.73	-56.59	-59.75
대한항공	33,191.57	2,392.68	-5,243.15	12.73	흑전	흑전
LG디스플레이	62,687.33	-4,920.52	-6,875.18	3.67	적화	적전
하이닉스	22,911.05	-2,767.59	-5,626.20	-16.94	적전	적전
LG전자	128,972.27	-318.86	-4,139.16	-10.34	적전	적전

※ 자료:FNi아이디

시너지 효과 및 이라크 시장 진출, 해외수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송재학 센터장은 "4분기 및 내년 해외 매출 인식 증가로 실적 모멘텀이 양호할 것이고 리비아 프로젝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코스닥 시장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다음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황상현 센터장은 셀트리온에 대해 "신용국가시장으로 바이오시밀러 실험용 배지매출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레이케이드, 허셉틴 임상 3상 마무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남석 센터장은 다음에 대해 "4분기는 온라인 광고 시장 성수기이며 디스플레이 광고 단가 인상 효과로 전분기대비 두자리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 내년 주가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내년 우리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3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이 3.7%에 그쳐 4분기 7% 고성장률 이르지 못한다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4.5% 달성도 불가능한 상황. 경제성장률 이렇듯 수출은 회복이 걸음을 지속하고 있고 광풍 일어붙은 소비심리는 좀처럼 풀릴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 수출이 늘면서 내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개선된 제품경쟁력이 훈풍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설명이다.

동양증권 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우리경제는 상반기 미국 경기둔화와 유럽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그러나 주요 경쟁 상대국 대비 높은 통화절하와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수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이 유지되고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으로 실질구매력 증가로 소비회복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3.8%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부진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난 7월과 8월 IT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5%, 2.4% 감소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선 2009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9월 들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으나 D램 및 액정표시장치(LCD)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우리투자증권 송재학 리서치센터장은 "환율이 안정을 되찾고 유럽을 제외한 미국 등 선진국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IT업종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신용 시장에서의 IT수요가 선진국 시장의 부진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될 경우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호황을 누렸던 정유·화학의 경우 단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 경기회복 둔화로 인해 수요부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착륙 우려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거시경제 흐름이 악화되면서 4분기 화학제품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주감소, 유가불안, 선가하락 등 온갖 악재에 휘말렸던 조선업종도 시정은 별만 다르지 않다. 미래에셋증권 황상현 리서치센터장은 "고유가 및 운임 약세로 해운업체들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그러나 조선사들의 경우 내년에는 해양시추선, LNG선뿐만 아니라 일반 상선에서도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바로 자동차다. 송재학 센터장은 "수요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원화약세(엔화강세)로 인해 수익성 감소 리스크는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 역시 중동 문제 해결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플랜트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hainaim.com **채남**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독자들이 먼저 찾아 읽고 전설처럼 전해준 젊은 날의 방향과 고뇌

2,000회 이상 블로그에 포스팅되며 청춘남녀를 감동시켜온 바로 그 책!

김한길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 슬픈 / 아름다운 / 고백은 없었다
안타깝고 아리고 지독하게 그리운 김한길 젊은 날의 일기
작가 김한길, 청춘의 또다른 고인 『병정일기』 수록

***** 김한길 님의 '눈뜨면 없어라'를 읽고는 짐을 못 씀니다. 카뮈가 장 그르니에의 '섬'을 손에 들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한자 한자 읽었던 것처럼 행복했으면 믿으실까요? 트루터 이진우 님

***** 피사..... 웃음이 나다가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가도 또 다시 피사 웃음이 나는..... 그러면서도 공감하게 되는 책, 다음 블로그에 올릴 님

***** 미래가 불안한 20대를 살고 있는 내게, 교훈과도 같은 책, 그래서 나는 현재의 작은 기쁨과 깊은 행복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네이버 블로그의 테이 님

***** 간절하지만 읽는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관통하는 절제된 표현이 일품이다. 나는 이 책에 '답'밖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파란 블로그의 위달 님

***** 무언가에 괴롭거나 행복을 잃어 자신감을 잃은 이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네이버 블로그의 짐승 님

432쪽 | 시루터 | 양정본

"이 글들은 아마도 내 젊은 날 가장 힘들고 막막했던 시절의 기록이다. 하기가 더 어려웠던 고비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 역경을 견딜 만한 의미와 의지가 있었다. 그런 시간들은 고담프면서도 불행하지 않았다." —「작가의 말」 중에서

한미FTA 막판 조율 실패... 오늘 대충돌

여야정, 최대 쟁점 ISD 끝장토론 끝내 무산 (투자자국가소송제) 與 “시간없다” 강행 움직임... 野 “강력 저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1일 극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29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날까지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물리적 저지 방안을 재확인하며 결사저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30일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야당측 불참으로 무산됐다. 공중과 생중계 불발과 31일 처리를 전방위 상황에서 이날 토론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불참의 주요 이유였다. 이와는 별도로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막판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ISD 폐기를 둘러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자리한 여·야·정 비공개 심화회담에서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인 피해보전 등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키로 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공히 남은 쟁점을 ISD 폐기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1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개최, 막판 전략 수립에 나선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의총 이후 오후엔 야당 합동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날 여·야·정 합의를 설명하며 민주당 등 진보야당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내 강경파와 진보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야당 정책 공조를 이유로 민주당이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 외교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면 여야 양당이 모두 침몰하게 된다”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홍 대표를 위시한 강경파는 야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강행처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회 사무처 요청에 따라 국회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서며 유사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단전을 기하고 있다. 김기성·이성구 기자 kisung0123@



손 집은 박원순·혁신과통합 박원순 서울시장 30일 오전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야권 대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손을 모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이해찬 전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여야, ISD 놓고 이견 왜?

野 “독소조항 폐기해야” 與 “盧정권때 이미 포함”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중재기관인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 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 발생시 양국이 중재부 3명 가운데 1명씩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CIS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세계은행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ISD 폐기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ISD가 적용될 경우 국내규제 및 공공정책이 무력화돼 내수시장과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

어 한미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ISD는 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문 원안에 있는 조항이라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ISD 폐기는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한미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신 국내 피해산업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책에 있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SD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 가운데 81개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전세계 2500여개 국제협정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더드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정책 돋보기

김영선 의원 발의 '지식재산기본법'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전략 추진해야”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었지, 경쟁기업의 특허권제에 대해서는 전략수립에 있어 미약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핵심 특허 선점을 통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선진국은 10여 년 전부터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동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종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 등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이 미흡하였다. 이에 지식재산의 컨트롤 타워를



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제출했던 것이다. 특히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은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식재산의 기술개발·관리·화·사업화에 있어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등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총 30~40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인 업무와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R&D시작 전부터 기술 활성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있어 금융이 각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 육성, 가치평가체계 및 금융체계 정비, 지식재산 DB 구축 등 활용 촉진시책을 구체화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선도하여 신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및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특허소송 관할 개선 등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살펴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한나라, 인적쇄신 ‘자중지란’

이재오·원희룡, 지도부 중심 물갈이론 재점화 남경필 등 혁신 8인방 “차 전대표 변화주도를”

‘당 쇄신안’을 마련 중인 한나라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이다. 지도부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뺏속까지 쇄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지만 벌써부터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남경필 정무인 이해춘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정대근 홍정욱 의원 등 ‘혁신 8인방’은 조만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의 쇄신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도 실릴 전망이다. 정대근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에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엇을 뜯어고쳐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도 그런 것(변화·개혁)을 해야 할 분”이라며 “구체적인 걸 정해서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가 ‘홍준표 체제’의 존립을 인정하며 안정론을 택한 것과는 배치된다. 정몽준 전 대표는 당권·대권을 분리한 현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표께서 힘이 많으니까 힘 있는 분들이 전부 나와서 (전당대회)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인적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시각에선 선거가 다가오니 ‘표 달라고 얼굴을 바꾸는 것’이 그런

선수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지난 30일 트위터에서 “내년 농사를 잘 지으면 객토(客土)를 하든 땅을 바꾸든 해야 할 걸세”라고 말했다. 객토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흙이나 모래를 옮겨오는 것’으로 지도부 교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고민 중”이라고 할 뿐 인적쇄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당명개칭 → 중도성찰인사 지도부보 영입 → 총선 공천개혁’ 시나리오도 나온다. 현재 당의 구조적 틀을 바꿀 때만이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의 관계자는 “이런 시나리오가 바깥이 되면 안철수 교수 같은 인물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중 기자 zerg@

Merry Meritz!
MERITZ
메리츠화재

가족걱정은 메리츠가 할게요!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가족걱정

‘우리 식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해야 할 텐데...’
‘우리 애들, 내가 곁에 없을 때도 힘이 돼 주고 싶는데...’

(무) 메리츠 {가족단위} 보험 **MStory** 1106

본 상품의 상기 다양한 특약사항은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1688·7711

은가족 치료비 100세 보장으로 평생 건강하게!

- 기존 80세까지 보장받던 3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와 입 및 7대질환 수술비를 100세까지 보장
- 해외치료 입원료비, 중환자실 입원료당 등 차별화된 보장도 100세까지

가족 3대를 위한 보장을 하나의 보험으로!

- 부모님, 우리 부부, 자녀까지 보험 하나로 통합
- 자녀태어날 때 생애초기 성년보험으로 충분한 보장 지속

메리츠 걱정안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QR코드를 찍어보세요

www.merrydoll.co.kr

손해보험회 상의회 제2011-2600호 (2011.7.29.) *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대금·공용계좌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가산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中 “유럽 구원자 역할 안한다”

신화통신 “친구로 도울것...구세주 기대말라” EFSF 채권투자 손실 리스크 보증안해 외면

중국 유럽의 애를 태우고 있다. 유럽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중국이 유럽의 잇따른 리브롤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최고경영자(CEO)가 별 다른 소독을 거두지 못하고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레글링 CEO는 베이징에서 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친구인 유럽을 도울 것이나 유럽은 중국이 재정위기의 구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신화통신의 사설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감지됐다. 후 주석은 지난 27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럽 지

원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28일 “중국의 EFSF 투자 여부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지원을 이끌 만한 동기를 전혀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태도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유럽 지도자들이 외국인들의 EFSF 채권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손실 리스크를 보증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중국 국영은행 국제 딜러는 “그리스 국제 민간투자자들의 손실(상차) 분담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은 막대한 원금을 때릴 수 있는데 유럽 정부는 이에 대해 보증 계획조차 없다”면서 “매우 매력적이지 못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국에게는 앙금으로 남



중국 유럽의 구원투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주목된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CEO가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중국 방문길에 별 다른 소독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아있다는 평가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14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유럽연합(EU)은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투자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의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촉구했다. 유럽은 환율 시스템 등 금융자유화가 미진한 점을 들어 아직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시장경제지위는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분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미국 10월에 폭설... 페루엔 강진 지구촌 끊이지 않는 자연 재해

지구촌이 재해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을 덮친 때 이른 겨울 폭풍, 3개월이 넘게 계속되는 태국의 홍수, 터키에 이어 페루에 닥친 강진 등 지역을 불문하고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30일(현지시간) 이틀 간 눈폭탄을 맞으면서 33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고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이 끊겨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회사들이 제설작업과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전력 공급 재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전력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주 북부의 플레인필드에 최대 68.6cm의 눈이 내리는 등 폭설로 최소 3명이 숨졌으며 뉴저지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주와 뉴욕주 13개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태국은 수도 방콕이 전면 침수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불안은 여전하다. 인력 친화적 태국 총리는 이날 “비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사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홍수에 대처한다면 다음달 첫째 주부터 방콕 유역의 강물 수위가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지난 이틀간 방콕을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 강 수위는 2.5m의 홍수방지벽 높이보다 낮거나 약간 높는데 그쳐 우려

했던 대규모 범람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방콕 외곽은 돈므앙과 싸이마이, 방플랏, 타워 와타나 구역 등 침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페루는 지난 29일 규모 6.9의 강진이 중부 해안지역을 강타하면서 10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페루 재난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1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건물 708개가 붕괴하는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이카시는 지난 2007년에도 규모 7.9의 지진이 강타해 600여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태 홍수 위기는 넘겼지만... 태국 방콕 북부의 다리의 일부가 30일(현지시간) 물에 잠겨 있다. 이날 방콕은 전면 침수 위기는 넘겼지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는 커지고 있다. 방콕/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콰타스 항공 오늘 운항 재개

파업 이틀만에 업무 복귀
이들간의 과업으로 위기에 놓인 호주 국적항공사 콰타스항공이 31일(현지시간) 오후 2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앨런 조이스 콰타스 최고경영자(CEO)는 “가능한 빨리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며 “일부 운항은 31일 오후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공정근로(FWA)는 콰타스가 지난 29일 파업으로 운항을 전면 취소하자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열고 “노조 파업을 금지하고 콰타스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를 끝내라”고 명령했다. 콰타스는 항공 정비사 중심의 호주면허항공공인지니어협회(ALAEA)와 항공화물 및 기내식을 담당하는 수송노조연맹(TWU), 국제선 조종사로 구성된 호주국제항공협회(ALPA) 3개 노조단체

들과 협상에 대한 의견을 보였다. 콰타스와 노조단체의 불화는 조이스 CEO가 ‘콰타스 인터내셔널’ 계획을 발표하고 임금과 근무환경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고조됐다. 조이스 CEO는 호주 외 사업을 확장하면서 호주 직원 1000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 9월 9일 휴업 계획 취소와 임금 인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콰타스의 파업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콰타스 측은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전면 운항 중단으로 447개 운항이 취소됐고 콰타스 이용 승객 6만 8000명이 발이 묶여 하루 2100만달러의 손해를 냈다” 밝혔다. 빌 소튼 호주 재무부 차관은 “우리는 콰타스가 운항을 재개하고 호주 관광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日 대기업 따라 中 中企도 해외로

컨소시엄 구성 공동진출
일본 대기업의 ‘엑스터스’ 행렬에 중소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공업단지에서 중소기업들이 신흥국으로 일제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샤지인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마쓰 시에서는 10개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형업체들로 구성된 군마현 금형공업회는 멕시코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플라스틱 성형과 금속 가공업체가 밀집한 도쿄도 가스시카구에서는 19개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히시모토 마사루 금형공업회 회장은 “일본에 거점을 남겨두는 조건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동일본 대지진에다 엔고까지 겹치면서 대기업의 동향을 지켜보기만 하던 중소기업들도 심각하게 해외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엔고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해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역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산업 공동화를 꾀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만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 거점을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정부도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융자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산하 금융기관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애플, 3분기 1인당 순익 10만달러

美 IT업계 생산성 최고
애플의 지난 3분기 직원 1인당 이익이 10만9652달러(약 1억2100만원)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증권거래소(SEC)에 제출된 IT 기업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애플의 직원 수는 6만400명으로 66억 2300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고

기록했다. 애플과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6만3756달러, 인텔 3만 4715달러, 아도비 2만1400달러, 시스코 1만7153달러, 야후 1만263달러, IBM 8994달러, 델 8873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1인당 순익이 연 기준 15만1063달러를 기록해 구글의 20만9624달러와 MS의 19만4297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www.ohmyhotel.com

전세계 비즈니스 트립 솔루션의 새로운 이름

수많은 전세계의 주요 도시들, 해외 출장 때 마다 숙소 예약에 골머리를 썩히고 계십니까?
오마이호텔은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세계 7만여개 호텔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요금조회에서 실시간 예약확정으로 이어지는 차원이 다른 호텔 예약 서비스
오마이호텔, 전세계 비즈니스 트립 솔루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오마이호텔 기업회원 서비스

- 전 세계 7만여개 호텔 실시간 예약 기업전용 회원 운영
 - 일반개인과객 대비 마일리지적립 및 요금할인 적용율 2배
 - 기간별 예약 실적에 따라 숙박권 및 할인권 증정
 -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주요 출장지역 전문상담원 운영
- ☎ 02-725-8004 국내호텔 ☎ 02-725-6767 해외호텔

bico (주)비코티에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6-11 BICO N B/D (121-894) hotel@ohmyhotel.com



ohmyhotel.com | HotelJapan.com | HOTEL INFO

‘지독한 일사랑’ 젊은이 보다 더 뜨거운 영원한 현역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창의적인 사고와 남다른 열정으로 서희건설을 이끌어가는 이봉관(67) 회장. 그는 포항제철 입사 경험을 살려 유성터엔에스를 설립했고 이후 철강과 물류사업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중견건설사 서희건설을 세운 장본인이다. ‘이제 그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주위의 시선도 없지 않지만 그는 아직도 “항상 현역으로서 열정적으로 뛰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실제 손녀 등장 TV광고 직접 아이디어= 요즘 TV를 보면 “이 진사택에 딸이 셋 있는데...”라는 흥겨운 리듬의 광고가 등장한다. 세 명의 여자아이와 탤런트 한고은이 등장하는 서희건설의 양주덕 정 스타힐스 광고다. 일반 CF보다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이 광고는 이 회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제작됐다.

이 회장은 “이 짧은 광고 속에 자신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세 딸을 둔 아버지로서, 서희스타힐스 시공 초기단계부터 완공까지 세 딸이 살 집을 만드는 마음으로 더 정성을 다해 지었다는 부연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자아이들은 실제 그의 손녀다. “두 딸들은 이제 모두 가정을 이뤘고, 막내도 출가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요즘 트렌드인 ‘딸바보’의 대표주자다.

이 회장은 “수년전 아내를 사별한 뒤로는 딸들에 대한 애정함이 더욱 커졌고, 회사에서 첫째와 둘째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직한 동반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뿌듯해 했다.

이 회장의 큰딸 이은희(38) 상무는 현재 서희건설 통합구매본부 본부장을 맡고 둘째딸 이성희(36) 이사는 재무본부에서 회사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막내딸도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는 “세 딸에 대한 부성애와 고객을 위한 진심을 담아 서희스타힐스 광고를 만들게 됐다”며 “분양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서희스타힐스에 오셔서 가족과 건설에 대한 저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자신있게 당부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딸바보가 딸들을 생각하며 지

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라면 믿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소통 중시하는 ‘열린 경영’...정년퇴직도 없어= 서희건설은 한국경영자 총 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노사협력대상 증권중소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 회장은 회사가 장립한 이래 단 한 건의

뒤, 2003년 3월에는 자본금증가에 따른 이윤을 주주와 직원에게 무상증자를 통해 배분하기도 했다.

일반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 하는데 혈안인데 반해 이 회장은 자기자본만으로 기업을 꾸리겠다는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서희건설은 환경사업

눈앞 이익 좇지 않고 기업이윤 사회 환원 직원과 소통으로 열린경영...정년제도 없애 장녀·차녀와 함께 근무 유난한 딸사랑 화제

분규도 없는 일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그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에도 주력하며 임직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굳게 단합해 이뤄낸 오랜 신뢰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기본 경영방침은 ‘공동의 선을 실천하는 윤리와 정직한 경영자세로 외형의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한다’는 것이다. 빨리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보다는 천천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 회장은 ‘기업은 나라와 직원의 것이고 국민의 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1999년 코스닥증권시장 등록으로 주주의 일부를 직원에게 나눠준

과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 문화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당장의 수익창출보다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안정적이고 건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노장투혼을 불사르는 창업주의 회사답게 서희건설에는 정년퇴직이 없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년퇴직이라는 제도로 나이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이 회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회장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스스로 체력이 다했다 느껴질 때 물러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혁 기자 daniel@



남다른 열정으로 서희건설을 이끌고 있는 이봉관 회장은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보다는 천천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사업을 선호한다.

이봉관 회장의 경영철학

서희건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새 동지 지원센터’ 사업이 그들이다. 서희건설은 2005년 4월부터 포항과 광양사업소에 ‘새 동지 지원센터’를 설립, 나눔 경영을 실천해 이만달 50호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6·25 전쟁때 평양에서 월남해 가장으로서 어려운 살림을 꾸리게 된 이 회장은 외국인 선교사 분의 호의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 나눠주고 싶다”는 그의 생각이 이 사업을 계속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이 회장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은 목적 없이 일은 끝까지 하고 싶다”며 “우리 직원들도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직원을 챙기는 마음도 잊지 않았다.

서희건설 임직원들은 매일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노인들의 목

“누군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하자”

욕을 돕는 등 효행사상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 회장은 그 동안 ‘건설의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며 건설의 미래를 확인했다고 말한다. 타사들이 꺼려하는 공공건축을 통해 현재 위치에 올랐음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병원·학교의 건축은 건설과정이 까다롭고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서 표준화가 어렵다. 또한 완공 후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건설사가 기피해 왔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우선으로 공공기관 건축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도급순위 31위에 올랐게 됐다.

서희건설이 아쉽게 갖고 있는 ‘양주덕정 서희스타힐스’ 역시

이 회장의 차별화 전략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업계의 블루오션이 공공건축이었다면, 지역상의 블루오션은 경기북부의 ‘양주덕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양주 덕정지구는 양주신도시 개발로 택지지구로 선정됐고, 1호선 덕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 중심으로 가는 버스도 많아 출퇴근 용이하다. 큰 회장이 신설되면 덕정역과 함께 두 개의 역이 교차하는 지역이 된다.

이 회장은 “양주덕정은 생활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장흥과 포천이 매우 가까워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새동지 지원센터’ 불우이웃에 무상 집수리 ‘동대문 자원환경센터’ 음식물 자원화 추진

이밖에 서희건설이 음식물 자원화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은 ‘동대문 자원 환경센터’ 역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별화 사업으로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환경관리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대문 자원환경센터는 음식물쓰레기 200톤에서 2000kw/h의 전력을 생산해내며 부산물은 퇴비로 쓰인다. 이는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친화적이며 항구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해 찬사 받는 환경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유지 및 에너지 보존은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daniel@

www.gini.co.kr
HYUNDAI MnSOFT

가장 똑똑한 3D가 되었다!

지니 3D V2!

리얼함은 기본, 더욱 똑똑해진 지니 3D V2!
이제 3D 내비게이션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똑똑한 3D,
지니 3D V2의 주요 기능들

UCM(사용자가 직접 꾸미는 메뉴)

3D 입체지형(DEM)구현

3D 입체도로 구현

사용자 카메라 등록기능 강화

스마트 트래픽(Smart Traffic)

롱탭(Long Tab)기능

3D 뷰 컨트롤러

중앙선 우측 주행

윤활기유 사업, 정유업계 호자 '톡톡'

정유사들의 윤활기유 사업이 효자노릇을 토크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사업인 데다, 안정적이어서 정유사들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정유사들의 윤활기유 사업 수익률은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 비교적 잠잠한 정유 사업 부문에 비해 윤활기유 사업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윤활기유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SK루브리컨츠는 3분기 매출 6943억원, 영업이익 198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루브리컨츠의 영업이익률은 28.6%다. 정유사업을 담당하는 SK에너지의 2.0%, 석유화학사업을 맡고 있는 SK종합화학의 8.5%보다 배 이상 높다. 윤활기유 사업의 매출액 규모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보다 적지만 영업이익의 규모는 거의 대등하다.

에스오일 역시 윤활기유 사업으로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에스오일은 3분기 윤활기유 사업으로 매출 6947억원, 영업이익의 2192억원을 기록했다. 에스오일의 윤활기유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31.5%에 달해 전체 사업 분야 중

자동차용 윤활유재로 3분기 수익률 사상 최대 마진을 높고 매년 10%수요 증가에 수익 개선



SK루브리컨츠 윤활기유 공장. SK루브리컨츠는 윤활기유 사업을 통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가장 큰 영업이익의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정유 사업에선 환차손 등의 외부 변수로 0.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에스오일은 하루 4만배럴의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세계 2위권의 업체다.

에스오일 관계자는 "유럽, 미국 등 최대 자동차시장의 호황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활기유는 대부분 자동차용 윤활유 제품의 재료로 쓰인다.

국내 정유사들이 주로 생산, 판매하는 윤활기유는 '그룹' 제품이다. 그룹 30이던 윤활기유 중에서도 품질을 나눈 제품상의 명칭이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품질이 높다. 친환경, 고연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그룹3 제품은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친환경, 고품질인 그룹3 제품은 해마다 10% 정도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유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007년 윤활기유 사업을 시작한 GS칼텍스는 지난 5월 중국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현지 윤활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현대오일뱅크도 최근 윤활기유 사업 진출을 선언, 현재 설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활기유는 원유 정제 시 산 방기(CU)에서 원유가 추출되는 데, 최근 고도화율을 높인 정유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중동에서 생산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내 정유사들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영 기자 thec98@

"불황때 과감한 인재채용"

구본무 LG 회장, 내년 사업계획 수립

내달 한달간 업적보고회

LG는 오는 11월1일부터 한 달에 걸쳐 올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적보고회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구본무(사진) LG 회장은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우수인재 채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다음달 1일 LG생활건강, 2일 LG상사 등 계열사 CEO와 사업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에 한 계열사씩을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업적보고회를 실시한다.

이번 업적보고회에서 구 회장은 △여러 사업환경 극복 전략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재 확보 계획 △동반성장 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로 예상되는 등 국내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사업계획에 위기극복전략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 논의한다.

특히 구 회장은 우수인재채용에 대해 계열사 CEO들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지난 9월 말 열린 인재개발대회에서 "불황 때마다 각 사 CEO들에게 이럴 때 과감히 인재를 채용하라"고 당부했지만 용감한 CEO들이 별로

없었다"며 "이제부터 불황에도 좋은 인재 반드시 채용하도록 더욱 독려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연구·개발)지원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사업지원 △금융지원 △협력회사 소통 강화 등 LG의 동반성장 5대 전략과제 추진현황도 점검한다.

LG 관계자는 "이번 업적보고회에서 구 회장은 인사사업과 R&D 투자, 인재 확보, 동반성장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계열사 CEO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LG 계열사는 이번 업적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11월말에서 12월 초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철근 기자 ckpark@

뉴스브리핑

쉐보레 '캡티바' 유럽서 최고안전등급

한국지엠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쉐보레 캡티바가 유럽 신차 안전 테스트(유로 NCAP)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캡티바는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최대 6개의 에어백과 3열까지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하고, 1열 시트벨트에 차량 충돌시 안전벨트를 억으로 되감는 '듀얼 프리텐서너'를 채택해 충돌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또 첨단 전자식 주행안정 제어장치(ESC)를 장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급제동시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시스템(BAS) 등 첨단 안전사양이 장착됐다.

KT '올레TV나우' 오늘부터 유료화

KT가 모바일 IPTV인 '올레TV나우'에 플리케이션에 대한 6개월 간의 무료 서비스 행사를 종료하고 3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KT의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 가입자는 월 5000원, 인터넷과 IPTV(올레TV 실속형 이하) 또는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합친 결합상품 가입자는 월 2000원에 올레TV 나우를 볼 수 있다.

KT의 인터넷·이동전화·IPTV를 모두 결합했다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료 올레TV나우에서는 하나의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PC 등 여러 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현대모비스 '아시아부품 로드쇼' 개최

현대모비스는 국내 우수 부품 협력사와 함께 중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아시아 부품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8일 일본 스바루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에는 마쯔다, 24일과 25일에는 중국 길리자동차를 차례로 방문해 친환경·안전·제동·랙프·전장 등 부품사들의 주력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로드쇼에는 명화공업과 유라코퍼레이션, 서한산업 등 총 20개사가 총 110여 가지의 부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차이나, 中 온천리조트 개발 참여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한화차이나는 중국 이다그룹과 온천리조트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합자회사를 세워 중국 다롄(大連)시의 외곽지역에 용문단지 내에 온천, 워터파크, 리조트 및 골프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화차이나는 한국 내에서의 레저사업 경험을 활용해 용문단지 개발의 기획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이다그룹은 라오닝(遼寧) 지역에서의 부동산개발 경험과 브랜드 영향력을 활용해 사업의 개발 진행 및 건설을 맡는다.



현대차 '어린이 푸른나라 그림대회' 본선 개최 현대자동차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뜰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어린이 푸른나라 그림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와 환경보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하 12개 단체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9월 한 달간 열린 예선에 4만여명의 어린이가 출전했고, 30일 본선에는 1000명이 참가했다. 본선에서는 각 부문별 대상 3명, 금상 6명을 비롯해 참가자 전원에게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 우수작은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서울메트로 미술관에 전시된다.

"협력업체는 미래 경쟁력 원천"

최태원 SK 회장 동반성장 간담회서 강조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최근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갑을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지난 28일 오후 용인 SK아카데미 협력업체 CEO 70여명을 초청해 1시간여 동안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SK 동반성장위원장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윤석경 SK건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창규 SK네트웍스 사장, 박장석 SKC 사장 등 주력 계열사 CEO 10여명이 참석했고, SK에너지 협력업체인 케이피에

스이규호 사장 등 협력업체 사장 7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통상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그룹 측은 지난해와 달리 이번 동반성장 간담회에 주력 계열사 CEO들을 참석토록 한 것은 CEO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는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만들어 협력업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소통 사이트와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이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회장은 "SK는 협력업체를 필요로 하고, 협력업체는 SK를 필요로 하는 '윈-윈' 식 비즈니스 구조와 탄탄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라며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동반성장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언했다. 김정영 기자 thec98@

소니, 삼성전자 LCD합작 끝낸다

TV사업 부진·LCD패널 가격 하락에 지분 철수

소니가 삼성전자와 합작설립한 S-LCD에서 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소니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TV용 액정 표시장치(LCD) 합작기업인 S-LCD의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합작을 해소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니는 삼성전자가 2004년 LCD 패널을 생산하는 합작기업인 S-LCD를 공동

설립했다. 지분은 삼성전자가 '50%+1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소니는 그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다.

S-LCD는 총합 탕정에 2개 공장(7세대·8세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40인치대 LCD TV용 패널을 생산해 삼성·소니에 50%씩 공급해 왔다. 지난해 매출은 11조3700억원 수준.

소니가 합작지분 철수방침을 굳힌 것은 TV사업 부진 때문이다. 소니는

S-LCD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조 9500억원을 투자, 생산능력을 늘려왔지만 정작 TV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LCD 패널가격도 폭락했다.

소니는 TV사업에서 올해 3월까지 7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냈으며 누적적자 규모는 4500억원(약6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소니는 TV를 S-LCD로부터 LCD 패널을 공급받아 TV를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에서 사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한편 소니가 S-LCD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대신 삼성은 소니에게 S-LCD의 일정 물량을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기아차 中 소형차시장 2위

엑센트·K2 판매 호조

현대기아차가 중국 소형차 시장 판매량 순위에서 2위로 도약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9월까지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16만2472대를 판매해 2위로 올라섰다고 3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52.2% 향상됐다.

전체 순위로는 GM이 19만1626대를 팔아 1위에 올랐고, 현대기아차가 2위, 폭스바겐이 15만4582대로 3위를 기록했다.

점유율로는 GM이 12.9%로 1위, 현대기아차가 10.9%로 2위, 폭스바겐이 10.4%로 3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6697대를 팔아 8.2%의 점유율로 판매 6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소형차 판매량 순위 상승

은 현대차 엑센트(중국형 베르나)와 기아차 K2(중국형 프리이드) 등의 호조가 한 몫을 했다.

현지 전략형 소형차인 현대차 베르나는 올해 9월까지 9만6883대가 판매돼 차종별 판매 순위에서 3위를 달리고 있다.

6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기아차 K2도 출시 첫 달 만에 2만2376대를 판매하며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이밖에 현대차 기존 엑센트(1만7595대)와 기아차 리오(2만5618대)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들의 특성을 공략한 전략형 차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차종 연간 시장 점유율에서도 10% 이상을 기록해 6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jjeom2@



한국GM은 30일 말리부 사전발 조성을 위해 진행된 '말리부 주인공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김준(27)씨에게 1호차를 전달했다.

쉐보레 말리부 1호차 고객 전달... 판매 시동

한국GM은 30일 말리부 사전발 조성이 완료된 '말리부의 주인공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에게 1호차를 전달했다.

한국GM은 말리부의 본격 국내 판매와 더불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승 이벤트(Journey to Malibu)를 열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펼친다.

오는 11월 22일까지 말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에 응모하는 고객층 중 77명(동반 1인 포함)을 추첨으로 선정, 12월3일과 4일 1박 2일간 횡탄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에서 열리는 말리부 시승행사에 초청한다.

이번 시승 행사에는 아름다운 남해 해안도로 시승 뿐만 아니라 쉐보레 레이싱팀의 말리부 드라이빙 스쿨, 말리부 콘서트, 남해 아메리칸 빌리지 투어 등이 포함돼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STX조선, 36조원 캐나다 선박건조 사업 참여

STX조선해양이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36조원 규모의 초대형 군함 및 비전투용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결국 STX조선해양은 자회사 STX캐나다마린이 캐나다 시스템사와 함께 '캐나다 정 부의군함 및 비전투용 선박 건조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정부가 향후 25년 동안 15척의 호위함과 구축함, 6-8척의 대형 쇄빙선 및 해안경비함 등을 건조하는 초대형 선박 도입 프로젝트다.

STX캐나다마린은 시스템사와 함께 합동군수지원사, 극지용 쇄빙선, 해양탐사지

원선 및 어업연구선 등을 건조하는 비전투용 선박 건조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다. 비전투용 선박분야의 사업 규모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TX캐나다마린은 시스템사와 건조하는 모든 선종에 대한 설계 엔지니어링과 건조 건설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STX조선해양도 선박 건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STX 관계자는 "항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모여라
중소 새상품**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우수한 품질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지만 마케팅 및 판로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짜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집중 소개하는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이투데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적극 발굴·소개하고 매출증대 및 R&D(연구·개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투데이가 선정한 우수신상품'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유수분 밸런스 조절... 손상된 피부도 회복

오르컴퍼니 '오르 하이드로 리피드 베어오일'

동의보감 발간 400년 역사 속에서 피부 재생을 위한 한국 전통비방으로 알려져 있던 웅지(熊脂). 오르컴퍼니는 세계 최초로 웅지를 '베어오일(Bear Oil)'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해 프리미엄 스킨케어의 신원료로 개발했다. 오르 베어오일 스킨케어는 베어오일을 주원료로 해 피

부에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와 보습을 제공해 주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아토피 피부 효능 및 피부장벽 회복평가 임상실험을 비롯해 피부과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이기도 하다. 오르 베어오일 스킨케어의 스테디셀러인 '오르 하이드로 리피드 베어오일'은 베어오일, 아르간 오일, 호호바오일 등 천연오일들이 배합돼 피부에 고영양과 고보습을 제공해준다.



특히 피부 트러블로 인한 자극을 완화하고 진정시키며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파라벤, 광물성오일, 인공향, 색소, 알코올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피부 친화 포뮬러로 잦아지기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품 가격(30g)은 5만9000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7556-2840)로 문의하면 된다.

디자인·성능 향상 시키고 내구성은 높이고

코맥스산업 '클로켄 리빙박스'

코맥스산업이 기존 리빙박스보다 디자인, 기능, 성능이 2배 향상된 클로켄 리빙박스를 출시했다. 클로켄 리빙박스는 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서 적재하중 300Kg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타사 기존제품에 비해 약 5배 이상 내구성이 높다. 기존 타사제품이 적용했던 싱글스틸 와이어프레임에서 더블스틸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완했기 때문이다. 또 투명원도우를 정면과 측면 두 면에 배치해 박스를

둘러놓아도 내용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색상은 그린, 오렌지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구들과 조화되기 쉬운 고급스러운 월넛칼라에 그린과 오렌지색을 조화시켜 산뜻함을 강조했고 다용도실이나 세탁실 외에도 집안 어느 곳에 놓아두어도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클로켄 리빙박스는 인기 사이즈인 55리터 사이즈로 코맥스쇼핑몰(www.ikomax.com)에서 판매 중이며 론칭 이벤트로 2개를 사면 2개를 더주는 2+2 덤 행사를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11월 중 GS홈쇼핑을 통해서도 론칭 될 예정이다.



가격은 55리터 2만7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맥스쇼핑몰이나 소비자상담실(080-676-1004)로 문의하면 된다.

"홍채보안, 이젠 휴대 간편 어디서든 OK"

아이락글로벌 '신원인증 홍채보안카메라'

군부대나 정보기관, 경찰, 사설경비업체 등 특수경호 경비 요원들이 홍채를 이용해 출입자 신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신원인증 홍채보안카메라'가 순수 국내기술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홍채인식 보안전문기업 아이락글로벌은 휴대용 신원인증 홍채보안카메라 '아이리스캠200(IrisCam 200)' 개발에 성공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전세계적으로도 최첨단 개인보안시스템으로 손꼽히는 '신원인증 홍채보안카메라(Personal Iris Security

Camera)'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리스캠200'은 야전 및 특수시설 보안경비요원이 공항이나 항만 등 현장에서 출입가능자나 테러용의자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휴대도 간편하다. 또 기존의 서버, 카메라, 인식모듈,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된 홍채보안시스템을 소형 디지털카메라 형태로 최적화시킨 게 특징이다. 일반 디지털카메라와 달리 신원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을 직접 촬영하는 '아이리스캠200'은 내장된 전용 프로세서를 통해 홍채부위 만을 분리 추출, 카메라에 미리 등록된 수 천명의 홍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0.2~0.3초 이내에 99.99%의 정확도로 출입자의 신분 및



출입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해준다. 이 외에도 180명 분량의 디지털 홍채 데이터를 저장, 촬영된 홍채 영상 데이터와 실시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메모리가 내장돼 있으며 USB 외장메모리를 추가하면 손쉽게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다.



대기업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지난 28일 유통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초 각 분야별 3인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키로 했으나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오세조 연세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하나로마트 제외 대형 유통사 외면
유통구조개선특위 '반쪽' 출범**

이미 출범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유통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유통구조개선특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대형 유통업체간 구성하려면 자율적인 협의체로, 대기업 측은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중소기업회는 당초 지난 5일 신세계·롯데·현대·이마트·홈플러스·CJ홈쇼핑 등 대기업 10개 유통사를 모두 포함시킨 뒤 최근 논란이 되는 수수료 문제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논의할 구성체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이 모두 불응하자 중소기업회는 출범식을 28일로 연기했다. 문제는 대형 유통사들이 끝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유통구조개선특위 구성 취지가 반감된 것. 중소기업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설득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초에 참여의사를 밝힌 하나로마트 한곳만으로 유통구조개선특위 출범식을 치러야 했다.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 연구계, 중소기업계 인사를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회 관계자는 "유통구조개선특위가 자율적인 협의체인 만큼 대기업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대형 유통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식 참석자들은 유통구조 개선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려면 하심단회한 대화할 수 있는 장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반쪽짜리 유통구조개선특위를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의 시각은 무뎠다. 어차피 대형 유통사들이 순순히 대화에 응해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등 민감한 부분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것을 좋아할 대형 유통사들이 어디 있겠나"면서 "다만 최근 공정위의 백화점 수수료 조사와 맞물려 유통개선행의 출범 이슈가 대형 유통사들의 자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구조개선특위 위원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불참으로 여야 정책담당자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학계 5명, 연구계 2명, 업계 16명(대기업 1명), 언론계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정효진 기자 js62@

메디포스트, 美 현지법인 설립 계 된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펼치기 위해 법인을 미국 동북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州)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 중 설립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 말했다. 회사 측은 미국 법인을 독립 계열사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며, 향후 외부 투자를 유치해 GMP(우수약품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과 사업분야를 더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 신청방법

산업부 산업3팀 02)799-2664, 010-4858-5249 jscs508@etoday.co.kr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당고에 기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벤트를 즐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패션 1조클럽 “세정 추가요”

헤리토리 론칭 연말 매출 1조원 돌파 무난 신세계인터도 올 8000억 달성 내년엔 가입

패션업계 ‘1조 클럽’가입 회사가 연말 5곳에서 내년에는 6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이랜드 등 대기업 패션회사들만 매출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 중견패션업체 세정이 ‘1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세계그룹 패션계열사 신세계인터내셔널도 올해 목표 매출액 8000억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1조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1974년 인디언을 문정하며 등장한 세정은 올 상반기 매출이 4500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성장한 가운데 하반기 신규 론칭하는 브랜드 ‘헤리토리’효과가

지 더해진 연말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 올린 9500억원보다 10%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자 브랜드인 ‘올리비아 로렌’이 상반기에 전년대비 50% 성장하며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선보인 신규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이 론칭 3개월 만에 80% 성장을 이뤄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승기를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트레이디셔널캐주얼 ‘헤리토리’도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남성복, 여성복, 아웃도어, 캐주얼, 트레이디셔널 캐주얼 등 패션 사업에서의 비즈니스 영역을 다각화 해 토종 브랜드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 올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2015년에는 2조원의 기업으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일모직, LG패션, 이랜드 등의 경우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세정은 자체 브랜드로만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1조 클럽 진입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1조클럽 가입도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며 “2020년 매출 4조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 사업 확대는 물론 해외명품 브랜드 수입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인터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3850억원, 영업이익의 296억원, 순이익의 247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세계인터는 올해 경영목표를 매출액 8000억원, 세정이의 560억원 수준으로 잡았으며, 이는 각각 전년대비 37%, 15% 증가한 수치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406억원의 매출을 올린 디자인유나이티드(DU)와 이마트 PL(자체상표브랜드) 데이즈에서 매출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세계인터는 이마트로부터 양수받은 데이즈를 SPA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가점점 등 35개 점포를 SPA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 연말 세정에 이어 내년엔 신세계인터까지 1조 기업으로 우뚝서게 되면 대형패션업체 4곳을 포함해 ‘1조기업’이 6곳에 달한다”며 “국내 패션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리더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CJ, 프리미엄 면 ‘제일제면소’ 론칭

CJ제일제당은 50년 이상의 제분 기술역량을 활용한 프리미엄 면 브랜드 ‘제일제면소’를 28일 론칭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온면 시장은 연간 1800억 원 이상의 규모지만 최근 수년간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면 브랜드 론칭을 통해 시장전반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제일제면소 브랜드 론칭의 첫 제품은 제일제면소 소면과 제일제면소 메밀소바 2종이다. 제일제면소 소면은 진공방죽공정을 적용해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이 강점이다.

장구귀 기자 kkk@



한우데이, 한우가 싸데이~ 신세계백화점이 ‘한우데이’를 앞두고 주요 인기부위 한우를 파격 할인판매에 나섰다. 우수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로 전국한우협회등과 연계해 열리는 이 행사는 총 5800kg 물량 규모로 등심을 비롯해 양지, 사태, 불고기 등 1등급 주요 부위 한우를 30~65% 할인해 판매한다. 가격은 100g당 등심 5900원, 불고기 1980원 등이며 행사는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유통가 핫핫 핫

기존 LED TV에 비해 50% 이상 저렴한 이마트TV가 처음으로 선보인 날, 소비자들은 줄지어 서 가며 이 제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준비한 물량의 대부분이 서너 시간 만에 동이 났고, 주말에도 TV를 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로 향

하나 있습니다. 자체 상표로 싼 값에 시중에 선보인 부분까지는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비슷하게 진행했습니다. 롯데마트의 자전거가 그랬고, 홈플러스의 LED 모니터도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정도가 지났을 까요? 롯데의 통큰 자전거는 조

들에게 좋은 제품을 보증하지 못하게 만든 셈입니다. 이마트TV의 제품명은 ‘마드림 뷰(Dream View)’입니다. 골이골대로 해석하면 ‘이마트가 꿈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반값에다가 제품의 질까지 좋다면 TV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림에 보탬이 됐다

‘이마트TV’가 알아야 할 것

“PB 제품은 질 낮다” 편견깨야

했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제조업체와 손잡아 유통단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바잉과 위의 힘이 느껴지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입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TV메이커들이 잔뜩 긴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마트의 대박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TV 가격을 내려 이제는 가전으로 저가 전쟁을 벌이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박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마트TV는 넘어야 할 산이

립불량 드응로 제동장치 및 안장이 흔들리거나 앞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사례가 많아 모두 환불 또는 리콜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리콜 사유는 제조업체의 ‘KC인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롯데마트측은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는 스피커가 내장돼 있지 않았지만 스피커가 포함돼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빨리 내놓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형마트들의 성급함이 소비자

는 생각을 오래 간직할 겁니다. 이마트TV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제품의 질(Quality)입니다. PB제품은 싸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제품 판매 시작 후 구매자들로부터 반품요구나 A/S 요청이 없다면 그동안 대형마트의 싼값=불량(?) 공식을 깨는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겁니다. 그래야 보도된 기사들처럼 삼성이나 LG가 긴장하겠지요.

윤철규 기자 yoonck@

‘김가네’ 치킨점 ‘루시’, ‘와바’ 스파게티점 ‘까르보네’...

올 창업은 세컨드 브랜드가 대세

올해 창업 시장은 세컨드 브랜드가 대세다. 지난 26일에 찾아가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제2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주요 외식업체들의 ‘서브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가네는 세컨드 브랜드 치킨전문점 ‘루시’의 부스를 세워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루시’는 비스트로를 지향하는 치킨전문점으로 강동고덕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가네는 올해 내 ‘루시’의 매장을 5개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30개점을 출점해 치킨 시장에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형프랜차이즈들의 서브브랜드 론칭이 유행을 타면서 창업시장도 서브브랜드에 맞춰져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기간동안 김가네는 서브브랜드 루시를 옆 부스에 위치시켜 모 브랜드를 통한 홍보효과를 얻었다.

사바사바치킨은 ‘벨코와플’을 론칭해 와플-커피 전문점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에 첫 직영점을 오픈한 ‘벨코와플’은 올해 안으로 매장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기능을 앞세워 내년에는 200개점을 출점시킨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바는 스파게티 전문점 ‘까르보네’를 세컨드 브랜드로 론칭해 예비창업자들의 화제를 모았다. ‘까르보네’는 최근 서울 대치동에 매장을 오픈하고 올해 내 40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1000개 매장을 낼 계획이다. 이슬만 인도외식산업 가맹계약

‘비어 몬스터’로 세컨드 브랜드를 강조했다. ‘비어 몬스터’는 올해까지 5개를 오픈하고 내년에도 30개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근 투비피엔씨 이사는 “투비피엔씨가 이수근의 술집을 운영하는 업체라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수근의 술집과 달리 젊은 층을 공략한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도입해 20~30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그맨 이수근의 술집을 운영하는 투비피엔씨는 세계맥주전문점

www.rynkorea.com

세계가 인정한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손보사 올 순익 꺾춤... 연말 실적잔치 예고

대형사 2분기에만 지난해보다 50% 늘어 금융당국 車보험료 인하압박 거세질 듯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1회계연도 2분기(2011년 7월-9월)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3분기에 이의 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는 이날 일제히 2011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가는 대형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손보사별 증권가의 3분기 순익 컨센서스는 삼성화재가 2174억원, 현대해상이 861억원, 동부화재 676억원, 메리츠화재 366억원, LIG손보 257억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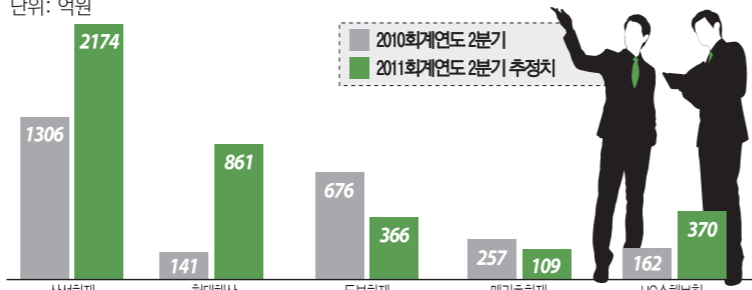
메리츠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370억원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삼성화재가 66.5%, 현대해상 510.6%, 동부화재 -45.8%, 메리츠화재 -57.6%, LIG손보 127.0%다.

이처럼 손보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지난해 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데다 자동차보험 개선안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를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4.1%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포인트나 줄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90.4%까지 치솟은 뒤 2월 이후 8개월 연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현황



손보사의 이익 개선 추세는 3분기에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LIG투자증권 지태현 애널리스트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시기는 보험영업에서 계절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기간이지만 실적 개선은 3분기에 더 지속될 전망"이라며 "지난해 9월 단행된 요율 인상이 100% 반영되고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수리비 견적서 제출 의무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를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보사의 순익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자동차보험 손해를 개선 추이를 살펴보고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손보사들은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미 손해율 분석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고득관 기자 dk@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막바지

론스타 펀드가 지난 2003년 이후 8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사안을 사전

주일의 지분매각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을 적용해 다음 주 중 임시의결권을 열어 외환은행 강제매각을 명령할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까지인 만큼 '론스



환은행 노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시장가격에 공개 분산 매각하는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상 지분매각 이행명령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이행 방식에 대한 내용과 조건은 불일 수 없다는 이유로 징벌적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금융권 안팎의 의견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당국 "론스타 대주주 자격 상실했다"

내주 강제매각 명령... 오늘 사전 통지

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28일까지였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종속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이에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10%의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은 51.02%이다. 금융위는 론스타 측에 약 일

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라며 다수의 추측이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외환은행의 경영진 공백 사태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인

수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난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일각에서 징벌적 강제 매각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



롯데카드 크리스마스 축제

롯데카드는 오는 12월 15일 롯데카드 고객 2만 2천명을 롯데월드로 초청해 놀이시설 무료 이용, 인기가수 콘서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제7회 프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

보험사서 적금 가입 하라는데...

"시중銀보다 고금리" 현혹 적금 아닌 저축성 보험상품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보험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시중은행보다 1% 높은 금리로 적금에 가입하라는 전화였다. 알고 보니 이 상품은 적금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었다. 일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해 저축성 보험을 적금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기존 저축성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최저로 낮추고 상해·질병 보장 등은 아예 삭제해

행의 적금 상품과 유사하게 만든 것이다.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이 5%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납입금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적금보다 만기 실수령액이 훨씬 더 적다.

사업비는 통상 보험료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사업비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관매인 수수료, 독립대리점 커미션 등 보험계약의 체결, 관리 등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험료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월 10만원씩 5년 동안 저축성 보험에 납입한다고 할 때 공시이율 5%를

적용하면 5년 후 수령액이 504만원에 그친다. 5년 동안의 납입금 60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2만원은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8만원만 실제로 적립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금은 보험료보다 많아 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 손실은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시중은행 적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 4%를 적용하면 624만원이다. 실제 적금 상품보다 환금율이 훨씬 적은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전화도 아닌 핸드폰으로 영업 전화를 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게 많다는 뜻"이라며 "저축성 보험은 중도 해지시 손실도 크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dk@

올 카드사용액 500조 넘을 듯

상반기 261조... 10% 증가 카드대란 이후 가장 많아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카드 사용액은 카드대란(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26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39조 1000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신용카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전체 카드 사용액이 493조 8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500조원을 돌파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는 카드대란 전년대인 2002년(622조원)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991년에 13조 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0년 만에 4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아울러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카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연도	카드이용 금액	최종소비지출 대비 카드이용금액 비율
2000년	224조9082	23.6
2001년	443조3675	36.9
2002년	622조9084	42.6
2003년	480조5436	40.6
2004년	357조8493	38.4
2005년	363조8164	40.9
2006년	370조8583	43.4
2007년	398조1893	45.5
2008년	445조3024	49.7
2009년	454조3980	52.8
2010년	493조8323	57
2011년 상반기	261조7180	60.1

드 사용액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민간최종소비지출(322조 3000억원) 가운데 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를 기록했다. 2005년 40.9%를 기점으로 2006년 43.4%, 2007년 45.5%, 2008년 49.7%, 2009년 52.8%, 2010년 57.0%로 높아졌다.

이지연 기자 lly@

주인없는 사망보험금 유족에게 돌려준다

앞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을 매년 3월 유족을 찾아 돌려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326억원(1만4590건)에 달하고 있는 것. 생명보험 계약이 9513건에 1078억원, 손해보험 계약이 5077건에 3248억원이다.

그동안 사망자 정보 활용에 문제가 있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사망자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용정보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1-14638 (2011. 8. 25) [11-A-CL-142]

라이나생명
CIGNA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은 외국계 생명보험사로서 최초로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세계적인 금융그룹 CIGNA의 딸입니다.
www.lina.co.kr

“자식들이야 자들이 다 알아서 한다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래요? 내 손으로 다 준비해두고 떠나고 싶지”

보험 하나 들어두면
좋겠다 싶으셨다면

나이가 많아도,
건강에 자신 없어도,
망설이지 말고
상담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든든해 하는 OK실버보험!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 전화해 보세요

- ✔ **가입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을 확실하게!**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 ✔ **50세~80세 분이라면 나이, 건강상관 없이 가입!**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질병·재해에 관계없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 일시금 지급**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재해 사망은 가입 당일부터 보장(단, 고의적 사고 및 자살 제외)
일반 사망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부터 보장 (단,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 제외)
* 재해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지급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 (갱신형) 의약품 및 의료진 없이 개인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입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 **080-086-5500**

* 최초 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장 86세까지 보장됩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단, 재해 원인은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증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재OK실버보험

“대출 직거래, 명석 깔았더니 다 모이네요”

■ 금융가 스타킹

여성금융협회 이태운 시장부장

“최근에는 연 19%대 금리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장논리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찾았다는 게 온라인 대출 직거래 장터가 갖는 의미다.”

여성협회가 직접 개설한 대출역매 사이트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www.directloan.or.kr)'가 금융권에서 화제다. 금융권 협회가 직접 나서 대출 고객과 회원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여성협회가 처음이다.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의 기획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금융협회 이태운 시장부장(사진)은 이같은 대출 시스템이 회원 캐피탈사와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자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직거래 장터는 중소기업자가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캐피탈사들이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제시하고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회사를 대출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캐피탈사 14곳 모두와 일부 카드사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대출 모집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캐피탈사는 영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출 고금도 5-7%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신용대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자들이 더 사이트 개설을 크게 반기고 있다고 한다.

이태운 부장은 “개인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금리가 30%가 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20%대 초반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며 “대출 승인률도 대형 캐피탈사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높은 금리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것인

지 대출금을 줄이고 낮은 금리를 선택할 것인지 등을 고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대출 직거래장터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직거래 장터가 업계와 중소기업인들의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태운 시장부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인단체와 수 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 자금 지원 문제가 거론되자 그 해결책으로 대출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것이다.

이 부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로 카드결제와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 우회 지원 아이디어 사업추진 2개월만에 사이트 오픈 대출 모집인 안거치고 직접 연결 금리 낮추고 영업비용 절감 효과

업자간의 감정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맹점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보다 우회적인 중소기업인 지원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라며 “그러다 올 6월 대출직거래 장터 아이디어가 나왔고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해 불과 2개월 만에 사이트를 오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현재 중소기업자로 제한된 대출 대상을 일반 개인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출 직거래장터가 더욱 활성화되면 축적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앞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그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보니 현재는 중소기업인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대출직거래 장터와 같은 시스템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 금융업권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쯤에는 일반 서민까지 대출 고객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dk@



은행들이 해외 현지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해 은행의 영업력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시중銀 해외점포 외국인 직원

“한국 배우러 왔어요”

글로벌화는 은행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해외시장 진출은 규모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글로벌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지 직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직원들에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기업문화를 전파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했던 직원들은 업무 복귀 후 지역별 강화연수와 자체 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3기까지 총 117명이 선발됐으며 올해말에 4기를 뽑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중국법인인 길림은행의 직원 3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 여신심사, 리스크 관리 등 동일한 업무에 대해 업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견학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으로 견학온 6명의 인도네시아하나은행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CS)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에 있는 CS전문강사가 인도네시아하나은행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직접 현지로 다녀오기도 했다.

문화 체험·핵심가치 교육 연수 프로그램 실시 늘어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취지다.

국민은행은 올해 일본, 미국, 영국, 홍콩, 중국 등 10개국에서 15명의 우수 현지 직원을 선발해 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국민은행 전산부, 콜센터, 영업부를 방문하고 거래사고 예방, 수출입 실무연수 등의 교육을 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해외 현지 직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어 배우 수 있다”며 “해외의 점포별로는 각 나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5월 총 31명의 해외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본국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우리은행의 이해, 한국문화 체험, 글로벌리제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리제이션 프로그램은 국외 사업부 직원과의 대화, 핵심가치 연수 등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 ‘글로벌 YF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외점포에서 추천받은 직원을 선발해 신한문화, CS 연수, 역할상 정립 등 입문 연수를 실시한다. YF 프로그램에 참여

기업은행은 지난 28일까지 해외점포 우수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경영 전략, 관련 부서 방문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해까지 연 1회만 실시했던 연수를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으로 확대했다.

하반기에 실시된 연수에서 중국 천진, 칭도 등 중국내 지점에서 13명이, 뉴욕, 동경, 런던, 호치민 등 그 외 해외 점포에서 6명의 현지직원들이 방문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시장을 점투하기 위해 현지직원들은 전문화, 고급화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내부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철학을 공유해 소속감을 강화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매년 총 12개 국가, 21개 점포에서 온 50명의 현지점포내 신규채용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은 영업점 실무업무 기본 및 심화과정, 외환은행 조직 및 전략의 이해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외점포의 각 실무자들에게 각 직무별 업무 심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의 연수를 제공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이장호·하춘수 회장 ‘행장’직함 땀까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과 하춘수 DGB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행장 직함을 땀까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방 금융지주사인 이 두 곳은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내년 초 행장 임기를 만료한다. 지방 금융지주사들이 회장·행장 이원체제로 전환해 지주사의 면모를 갖추지, 일원체제를 유지할지 갈림길에 놓였다.

BS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내년 2월 행장을 따로 뽑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은행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측근인 몇몇 부행장을 중심으로 하마평까지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기류가 흐르는 데는 이 회장이 내년 행장을 겸임할 경우 3연임이라는 부담이 작용했다.

부산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심훈 전 행

장이 물러나고 이 회장이 행장에 선임된 데는 심 전 행장의 3연임이 본인뿐 아니라 부산은행에도 부담이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중 행장이 세번이나 연임한 것 홍성주 전 전북은행장(2001년~2010년)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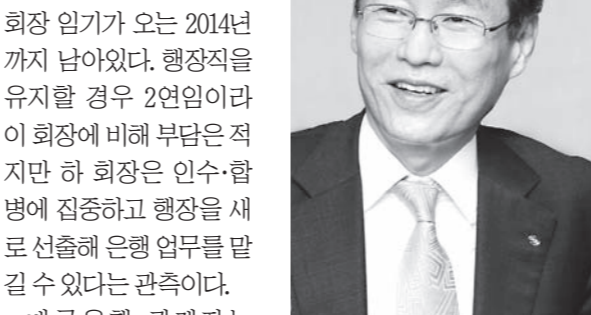
은행장 겸임 두 지방금융지주 회장

내년 초 임기만료 연임 부담되지만

지주사 핵심... 선뜻 놓기도 어려워

또 이 회장은 부산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함에 따라 올 3월부터 지주사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오는 2014년 3월까지다. 이에 이 회장이 스스로 행장 3연임을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행장을 내년 새로 선임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내년 3월 대구은행장 임기를 만료한다. 하 회장 역시 지주사 전환에 따라 회장에 임명되면서



하춘수 DGB금융지주 회장

회장 임기가 오는 2014년까지 남아있다. 행장직을 유지할 경우 2연임이라 이 회장에 비해 부담은 적지만 하 회장은 인·합병에 집중하고 행장을 새로 선출해 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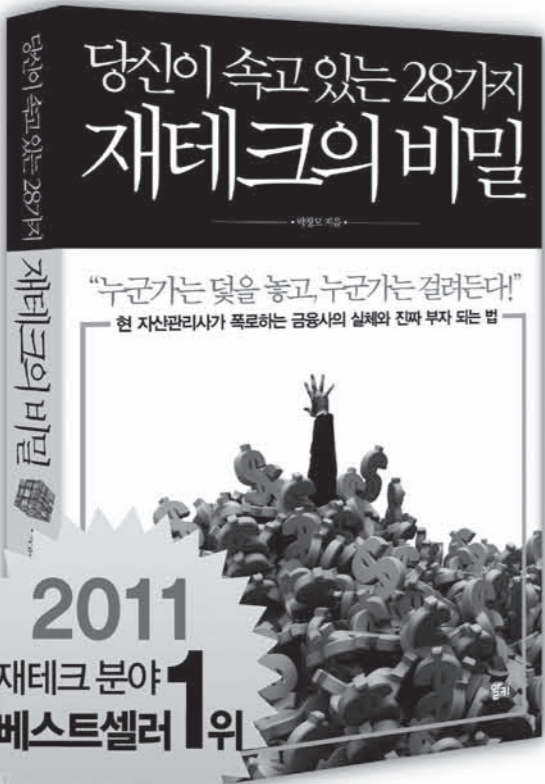
대구은행 관계자는 “행장 선출은 이사회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지방 금융지주사 모두 변수는 남아있다. 지주사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은행의 수익이 지주사 전체 순이익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BS금융은 올 상반기 2258억의 당기 순이익 중 부산은행이 97%인 2197억을 차지했다. DGB금융지주 역시 지난 2분기 857억원의 순이익 중 대부분을 대구은행에서 올렸다. 은행이 지주의 핵심인 만큼 회장이 행장직을 쉽게 놓을 수 없을 것이라 지적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100권의 재테크 책을 읽어도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현 자산관리사가 폭로하는 금융사의 실체와 진짜 부자 되는 법

수많은 재테크서가 쏟아져 나와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문가라 불리는 자산관리사들이 무료 재무설계를 해주며,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 지금까지의 재테크 지식이 당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중 서민을 착취하는 금융업에 회의를 느껴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저자 박창모는 이 책에서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알려진 재테크의 정설을 뒤집고, 착취하는 금융업의 거짓말을 낱알이 폭로한다. 누군가는 빚을 놓고, 누군가를 걸러드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본인 스스로 자산관리의 기본기를 갖춰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완벽한 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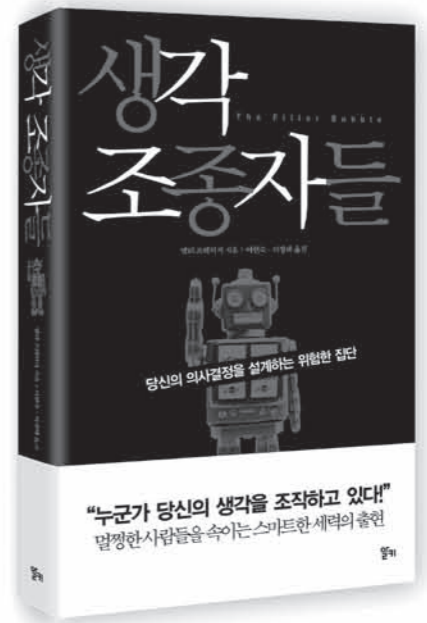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재테크 비밀! *****부자이베0954
억울하다, 그동안 속았다! *****1998rueman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한 번은 봐야 할 책 *****lucky7

다가오는 미래까지 보장받은 느낌 *****zorb214p
이 책을 3년 전에만 읽었다더라!! *****소행성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진리를 발견하다! *****dre

당신이 속고 있는 28가지 재테크의 비밀
박창모 지음 | 312면

“누군가 당신의 생각을 조작하고 있다!”

필터 버블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남는 법



당신의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위험한 집단
생각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지음 | 이현숙, 이정태 옮김 | 356면

11월 증시 전망

낙관론 “연말까지 랠리... 2000선 회복”

신중론 “대외변수 불확실... 등락 반복”

전문가들 엇갈린 전망
차익실현 모색 의견도

8-9월 1600선까지 주저 앉았던 코스피지수가 10월 1920선까지 만회한 가운데 11월 2000선을 회복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증권가는 코스피지수가 11월 이후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월 공포에서 벗어난 증시는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정체를 가질 것이라 평가 함께 차익실현 시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1월 유망업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11월에는 IT와 자동차, 건설, 경기소비재가 유망할 것으로 평가됐다.

■연말까지 2000 간다
이투데이가 국내 증권사 8곳의 11월 전망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1750-215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 대상 증권사 중 5곳이 고점으로 2000선 이상을 제시했다.

지수 고점으로 가장 높은 2150선을 제시한 하나대투증권은 최악을 벗어난 유럽재정 위기와 더불어 우려에서 자유로워진 미국의 경제상황이 시장의 하단을 보다 견고하게 해

11월 시장 전망

Table with 4 columns: 증권사, 예상밴드, 전망, 유망업종(종목). Rows include 삼성, 우리투자, 하나대투, 교보, KTB투자, IBK투자, NH투자, BS투자.

줬고, 이를 바탕으로 상단을 높여가려는 노력도 진행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 노력은 금융시장이 안정권으로 회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뒀다 한다.

■호흡 고르기 과정
반면 11월 증시가 10월 만큼 역동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평도 있다. 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향후 시장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문제 확산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상각을 앞두고 미세한 불협화음이 시장심리를 다시 냉각시킬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며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기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월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유망 업종에 대한 분석은 IT와 자동차, 건설로 일치했다.

김창원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차·화·정 종목군의 밸류에이션 우위속에 특히 자동차 업종으로는 이익 창출력이 여전히 뛰어난 만큼 완성차는 물론이고 부품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되고 그의 필수소비재에 대해서도 우호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NH투자증권 'WeHigher' 론칭
NH투자증권은 오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We Higher' 론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WeHigher'는 NH투자증권의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로 NH투자증권 지점에서 주식, CMA, 선물옵션계좌를 처음 개설하고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계좌 개설일로부터 100일 동안 온라인 매매수수료 및 계좌 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기업 주가 띄우려 신사업 진출

이달에만 13곳... 투자 주의를

상장사들이 잇따라 신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에는 바이오, LED, 전기차 등 소위 잘나가는 유망사업이 대세였던 반면 최근에는 불황극복을 위한 세계형 사업추가가 많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자원개발 등 주가 띄우기의 단골메뉴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 추가를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10월에만 13개사에 달한다.

본업과는 무관한 신규사업을 추가해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골판지포장업체 산성피엔씨는 전자상거래,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해양구조용 파이프 및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인 삼강엔지니어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또 나노섬유 제조기업인 엔티피아는 캐릭터 콘텐츠사업 도소매 및 출입업, 귀금속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건설·바이오·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는 홈쇼핑, 보험 대리점업 등을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신규사업 진출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들이며 주가를 높이는 호재가 되는 것은 물론 코스닥 시장을 좌우하는 테마주로 뒤편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다각화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단순한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유망사업 진출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못한 겉보기 사업에 그치는 전례가 많았던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자 mywish3@

IB강화 이트레이드증... '종합증권사' 가속

중국팀 신설... IPO 타진도

이트레이드증권이 지난날 초 IB 조직개편에 이어 중국 기업공개(IPO) 기회까지 타진하며 종합증권사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이달 초 IB조직 개편과 함께 중국금융팀을 신설했다. 중소형증권사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분석력을 따르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위해 이트레이드증권은 중

국통으로 알려진 박정필 전 신영증권 팀장을 영입했다. 3명의 인원이 팀원에 속해 있지만 추가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박 팀장이 이끄는 중국금융팀은 현재 중국기업 IPO를 타진하고 있다. 현재 2개의 중국기업이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트래코레드(실적)가 적어 대형사들과 비교 열세에 있는 국내 시장보다는 보다 실력으로 승부되는 중국

시장 공략을 통해 IB실력을 쌓아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고점사태로 인해 '차이나 리스크'가 확산되고 중국 경제가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노력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박 팀장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외국인 돌아오나

시총비중은 감소

9~10월 2조3585억 사들여
운송장비 7321억 집중매수

외국인들이 10월 들어 귀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발 혼풍에 국내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28일까지 1조 5172억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지난달 27일부터 집계된 외국인 순매수 물량은 무려 2조358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유로존 위기 완화와 미국 경기 지표 개선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단기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 역시 더해지는 모습이다. 외국인들은 자동차주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운송장비 업종에서만 7321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 이어 화학(3106억원), 금융업(2557억원), 철강금속(2121억원) 등을 매수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3580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어 기아차(1661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삼성생명(1639억원), KB

금융(1376억원), 삼성중공업(1328억원), 삼성물산(1263억원)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M(307억원), 네오위즈게임즈(255억원), 성광벤드(168억원), 아이씨디(114억원) 등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매도의 중심세력이었던 유럽계 자금 이탈이 정점을 지난데다 원화가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2차 정세 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 확대 및 은행 자본확충 지원 등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선진국 및 이머징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과 이머징 및 하이일드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글로벌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어 당분간 주식시장 상승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경우 1조30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수차익거래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353조2298억... 작년보다 0.02%p 줄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시총액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시총비중은 353조 229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02%p 감소한 32.93%였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04년 4월 44.12%보다 11.19%p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 시총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57%증가했다. 이어 운수창고업(2.10%), 섬유 의복(1.61%), 전기전자(1.47%) 등이었다.

반면 가장 감소한 업종은 비금속업(-10.01%)이었으며 건설업(-5.53%), 통신업(-3.49%), 철강금속(-3.16%) 등이 뒤를 이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쌍용차의 외국인지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15.32%에서 지난 26일 기준 73.11%로 57.79%p 증가한 것. 이는 지난 3월 쌍용차가 마힌드라그룹에 인수-합병(M&A)에 되면서 경영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감이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선영 기자 moon@

Table titled '외국인 시총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Columns: 일자, 전체, 외국인보유. Rows: 2001-12-28, 2002-12-30, 2003-12-30, 2004-12-30, 2005-12-29, 2006-12-28, 2007-12-28, 2008-12-30, 2009-12-30, 2010-12-30, 2011-10-26.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당신이 계신 곳이
삼성화재 오피스

삼성화재의 스마트 시스템이 당신을 찾아 갑니다
맞춤 보험컨설팅에서 상품선택, 가입처리까지...
이제, 당신이 계신 바로 그 곳에서 삼성화재의 특별한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세요, 스마트하게!

이것이 스마트다! 삼성화재 스마트 시스템

모바일로 강화된 신뢰성 태블릿 PC를 통한 24시간 365일 one stop 고객지원
모바일로 강화된 전문성 상담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1:1 맞춤 보험 컨설팅
모바일로 강화된 편의성 가입은 물론 사고처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까지 바로



보험가입 신청/상담 문의 09시~18시
1588-3339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인터넷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함 보험료 안내와 더불어 계신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벌기업
재무 리포트

NHN과 다음은 국내 포털업계의 라이벌이다. 2003년 양사의 매출 격차는 200억원에 불과했으나 7년새 50배인 1조원 규모로 급격히 벌어져 매출과 이익 등 규모 면에서는 NHN이 다음을 따돌린지 오래다. 그러나 순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반기말 기준 NHN이 3110만명, 다음이 2880만명으로 양사의 라이벌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포털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두 회사는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우수한 현금창출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차입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NHN이 5300억여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부차입이 잦다면 다음은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이어가면서 무차입 경영을 펼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포털 1·2위... 현금창출능력 바탕 풍부한 유동성

NHN

검색 광고·온라인 게임 주수익원
자금 여유에도 외부차입 잦은 편

NHN은 1999년 6월 설립된 국내 최대 인터넷 서비스업체로서, 검색포털 서비스 '네이버'와 온라인게임 서비스 '한게임'을 통해 광고, 게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검색광고 47%, 디스플레이광고 13%, 온라인게임 34%, 기타(콘텐츠서비스 등) 5%이다.

2010년 매출은 설립 이래 최대규모인 1조 3125억원을 달성했다. 정부의 웹보도게임 건전성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과 광고수입 일부가 자회사인 NBP(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로 이관된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영입이 강화된 온라인광고 부문의 매출 개선이 전체 매출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NHN은 확고한 시장지배력, 브랜드 가치, 효율적인 밸류체인 등을 바탕으로 4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영업 및 지원부문을 자회사인 NBP로 분리한 이후 비용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소폭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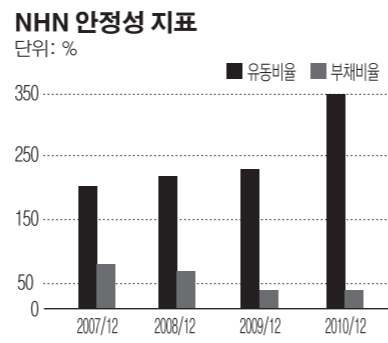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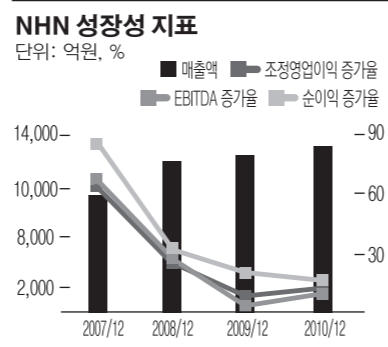
이 회사는 외형 성장과 높은 수익성에 기반한 자금창출력으로 내부 자금요를 충당

하고 잉여현금을 축적하는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R&D 외에도 자회사 출자 및 M&A 등이 매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과 현금흐름을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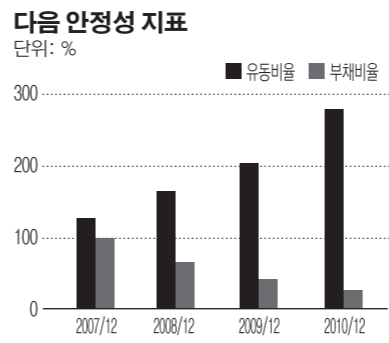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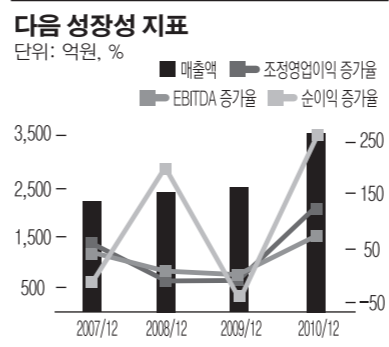
올해 1분기 중 1650억원 규모의 자회사 추가출자(NHN Japan Corp에 932억원, NHN 인베스트먼트에 500억원 등)와 215억원의 자기주식 매입 등 자금소요가 있었으나, 1분기에도 우수한 현금창출력을 유지함에 따라 외부차입은 750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다. 1분기 말 총차입금은 2035억원, 순차입금은 -3331억원이며 보유 유동성 5366억원은 2010년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입금 상환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나현 한신증권 연구원은 "높은 영업수익성을 바탕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 내외의 영업활동현금을 창출하고 있어 제반 자금소요에 원활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반기
매출액	12,081	12,371	13,125	7,096
순이익	3,631	4,217	4,942	2,387
자산총계	10,024	13,049	17,203	19,328
자기자본	6,188	9,835	13,661	14,811
부채총계	3,836	3,214	3,542	4,517
유동자산	5,512	6,764	8,242	8,616
유동부채	2,504	2,907	2,323	3,108
차입금	1,213	978	1,094	2,026
매출액증가율	31.3	2.4	6.1	-
순이익증가율	29.6	16.1	17.2	-
총자산증가율	23.6	30.2	31.8	12.4
자기순이익률	30.1	34.1	37.7	33.6
ROA*	36.2	32.3	28.7	12.3
ROE**	58.7	42.9	36.2	16.1
부채비율	62.0	32.7	25.9	30.5
유동비율	220.1	232.7	354.8	277.2
자기자본비율	61.7	75.4	79.4	76.6
차입금의존도	12.1	7.5	6.4	10.5

*자료: 금감원(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반기
매출액	2,340	2,446	3,455	2,003
순이익	459	311	1,117	612
자산총계	2,832	2,975	4,426	4,653
자기자본	1,743	2,096	3,513	3,727
부채총계	1,089	879	913	926
유동자산	1,417	1,602	2,357	2,863
유동부채	863	778	841	834
차입금	359	200	-	-
매출액증가율	9.1	4.5	41.3	-
순이익증가율	19.4	-32.2	259.2	-
총자산증가율	28.2	5.0	48.8	5.1
자기순이익률	19.6	12.7	32.3	30.6
ROA*	16.2	10.5	25.2	13.2
ROE**	26.3	14.8	31.8	16.4
부채비율	62.5	41.9	26.0	24.8
유동비율	164.2	205.9	280.3	343.3
자기자본비율	61.5	70.5	79.4	80.1
차입금의존도	12.7	6.7	-	-

*자료: 금감원(억원, %)

다음

판매관리비 낮추며 영업이익 증가
작년 부채 모두 청산 '無차입' 전환

다음은 1995년 2월 설립된 이후 이메일 서비스인 '한메일넷'과 커뮤니티 서비스인 '다음카페'를 축으로 국내 인터넷업계를 주도해 온 포털업체다.

이 회사는 이메일 및 카페서비스를 통해 충성도 높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어서 업계 2위로서 소정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 구조조정 이후 인터넷 광고업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준고정성 비용 비중이 높아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마케팅 비용 및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판매비 규모가 확대돼 수익성이 저하됐으나 2007년 검색광고 수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음은 새로운 검색서비스 출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2010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수익성의 경우 2008-2009년 매출액의 80%를 웃돌던 판매비를 2010년 72%로 낮추면서 영업이익률이 10%대 후반에서 28%로 10%가량 올랐다. 다음은 올해 반기말 현재에도

70%대의 판매비와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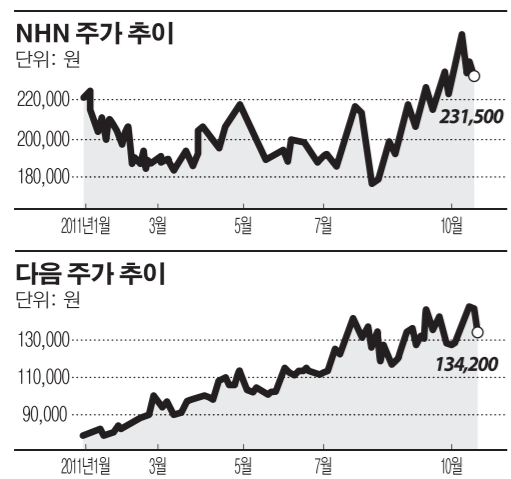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광고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돼 실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김유은 한맥투자증권 연구원은 "AD@m을 비롯해 마이맵, 마이피플, 디지털뷰 등 다음이 준비해 온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신규 비즈니스들의 본격적인 화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0년대 이후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던 중 2004년 9500만달러에 달하는 라이코스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이 저하됐다.

또한 안정적인 현금창출력과 함께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작년에는 차입금을 모두 청산하고 무차입 경영으로 돌아섰다.

2007년 다음의 차입금의존도는 17%, 부채비율은 93%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전무하고 부채비율은 25%까지 떨어졌다. 다음의 순차입금은 -2110억원이며 8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주가 전망



각각 모바일 검색·광고 사업확장... 실적상승 '청신호'

NHN과 다음의 향후 주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NHN은 모바일 검색에서, 다음은 모바일 광고에서 각각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실적 증가를 예상했다.

NHN은 28일 현재 전일보다 6000원(2.53%) 떨어진 23만1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NHN은 상반기 주식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8만~21만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8월 들어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방어주로서 기관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에 주가는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지난 19일에는 3년래 최대치인 26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향후 전망도 밝다. 2012년 모바일 및 게임 사업의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라 평가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NHN이 PC 인터넷 기반의 독보적인 사업 영향력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라며 "1위 사업자로서 구축한 DB(database) 및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8일 현재 5400원(3.87%) 떨어진 13만 42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올해 연저점이 1월3일로 첫 거래가 시작

된 이후 올해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8월 글로벌 약재로 인해 주가가 잠시 추축하기도 했지만 재차 반등해 지난 19일 11년래 최대치인 15만 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음은 국내 1위 모바일광고 대행사로서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고 4분기 실적도 기대돼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김장권 대우증권 연구원은 "계절 성수기에도 11월에 디스플레이광고 단가 인상이 예정된 4분기 실적도 기대된다"며 "다음의 아담(AD@m)을 통해 노출된 월간 모바일광고 페이지뷰가 90억건에 이르러 2위 구글 애드몹의 40억건이나 3위 FSN 카울리의 30억건과 비교해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pdran@

'불멸의 고통'을 기억하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지음 김형민 옮김 | 값 23,000원

근대를 이끈
6인의

거인들

루터 · 아인슈타인 · 흄볼트 · 프로이트 · 베토벤 · 괴테 등 거인 6인,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였고, 거대한 성공으로 근대를 견인했다.

루터에게 있어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었다. 괴테에게는 연인보다 사랑 자체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것이 괴테의 사랑방정식이다.

흄볼트 이후 어떤 이도 자연계의 현상을 정리해서 한 권의 저서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베토벤이 가져온 복음은 인간이 내재된 외적이든 그 어떤 활동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안위와 자유로움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올바른 단어조합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우주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산 늘고 부채 줄고... 재무구조 안정화 초점

LH 경영정상화 남은 과제는...

주택난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2년을 넘기며 경영정상화 추진에 여념이 없다. 모두 6단계로 나눠 진행해 온 '경영정상화 대책' 가운데 4단계를 넘겼다. LH 측은 설명이다. 이제 2단계만 진행되면 경영 정상화 목표가 완성된다. 지난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지공사는 '한국도지주택공사(LH)로 통합 출범했다. 지난 2년간 LH가 추진해 온 경영정상화 과정과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를 점검해 봤다.

◇물리적·화학적 통합(1단계) = 이지송 사장은 "통합조직의 특성상 '조직안정' 없이는 '재무안정'도 '종단없는 사업추진'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된 LH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 사장은 출범 초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위해 직원 융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출범과 동시에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조직, 사규, 급여·후생제도 등을 통합해서 운영했다.

경영시스템 통합 후 업무시스템과 프로세스를 7개월 만에 단일화했다. 신한은행이 2년 4개월, 건강보험공단이 2년 소요된 것보다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결과였다.

화학적 통합을 위해 공통의 가치체계 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통합공사에 맞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 직원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토록 지원했다.

◇유동성 위기 극복(2단계) = LH 사업의 특징은 초기 대규모 투자 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실제로 LH 사업의 평균 투자기간은 7년, 회수기간은 12년이 소요된다. 구조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재무역량을 넘어서는 국민임대 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개발 등의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수용 등도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1가구 건설시 9300만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사업특성도 한

몫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재무개선특별위원회 구성·운영했다.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검토·발굴했다. 그 결과를 상반기간 38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LH 이지송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104년 사업수지 흑자 전환과 2016년 금융부채 감소세를 목표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지송 사장 개혁 효과 상반기 순익 3733억원
총 부채 비율도 지난해 559%에서 458%로 줄어
지속가능경영 위해 '순환사업구조' 만들어야

작년 한해동안 달성한 순이익 3733억원을 초과한 실적이다. 자산은 152조원, 자본 27.3조, 부채는 125조원으로 총 부채비율은 2010년말 559%에서 458%로 101% 줄었다.

◇자구대책·정부지원 도출(3·4단계) = 이지송 사장은 "LH 경영정상화는 당시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공사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사업조정의 아픔을 견뎌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이지송 사장의 생각이다.

LH는 지난해 12월말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직원 임금 10% 반납, 인력

감축, 고유목적의 사업 정리, 원가 절감, 사업 시스템 개선 등의 자구노력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138개 신규사업의 사업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신규사업 138개 지구의 사업조정이 마무리되면 70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줄고 사업비 이연효과로 4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한 이후 LH는 전사적인 판매촉진활동도 벌여왔다. 공개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가드캠페인, 투자설명회 개최, 신규 수요 발굴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올 상반기 결산에서 순이익 3863억원을 시현했다. 매출도 7조3000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했다.

◇임대주택·선순환 사업구조 구축(5·6단계) = 임대주택사업은 구조적 부채 누증 문제를 해결해야 탄력을 받는다. 비수의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지원의 현실화와 더불어 주택기금 융자금의 출자전환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려면 적정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다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순(善)순환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무역량 범위 내로 사업규모 조정은 필수다. 수익성 차원에서 자본비율보다 투하자본 수익율이 코드로 경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 투자 축소를 위한 환지방식 도입, 기반시설 부담 축소, 자산유동화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지송 사장은 "오는 2014년부터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2016년부터 금융부채가 감소세로 전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스템적으로 정립한 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kwkim@

부동산 캘린더

분양일정

날짜	분양내용	문의처
10월 31일	접수	강원 삼척시 교통상치교동코아루터위 3순위 접수 033573-3300 경기 화성시 능동 동탄푸르지오시티 2순위 접수 1577-428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예천우경센터빌 2순위 접수 054655-7100 대구 중구 남산동 더루벤스 3순위 접수 053255-8484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힐카운티5단지 3순위 접수 1544-5550 충남 당진군 당진읍 당진2차푸르지오 3순위 접수 1588-4801
	계약	경기 화성시 석우동 동탄밸리2단지 계약 (-11/1) 031613-0400 경남 거제시 사동면 사곡영진자이온2단지 계약 (-11/2) 056138-5555 경북 예천군 예천읍 예천우경센터빌 3순위 접수 054655-7100 대구 동구 북부동 이시아폴리스더샵3차 1순위 접수 053746-6767 대전 서구 도안동 호반베르디움(도안17-2B) 1순위 접수 042544-4700
	접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한양수자인 접수 (-11/2) 051746-5545 경기 평택시 청북면 부영사랑으로(1B) 계약 (-11/3) 031686-5228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차e편한세상 계약 (-11/3) 055383-1900 경남 창원시 석전동 창원마산엘리아 계약 (-11/3) 055222-2922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상정그린코아 계약 (-11/4) 041533-2442
	계약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의왕포일2(국민임대) 1순위 접수(-11/3) 1600-1004 대구 동구 북부동 이시아폴리스더샵3차 2순위 접수 053746-6767 대전 서구 도안동 호반베르디움(도안17-2B) 2순위 접수 042544-4700 충남 연기군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1-4생활권M4) 1순위 접수 1577-5043
	발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모아미래도(A6-2B) 당첨자발표 031555-300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파주역사거리(2) 당첨자발표 032321-2550 경기 평택시 청북면 부영사랑으로(2) 당첨자발표 031686-5228 경기 화성시 능동 푸르지오시티 당첨자발표 1577-4289 인천 남구 학익동 삼익플라주 당첨자발표 032964-7055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1가 사안빌 당첨자발표 063225-1113
11월 1일	접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2차 계약 (-11/4) 055853-81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주하안로 계약 (-11/4) 1599-5200 대전 서구 가수동 우미린(18B) 계약 (-11/4) 042477-5900 대전 서구 도안동 캐슬리움 계약 (-11/4) 042488-4321 대전 서구 유성동 도안PARK 계약 (-11/4) 042471-5599
	계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모아미래도(3) 계약 (-11/4) 1577-9430 충남 연기군 남면 세종시푸르지오(1-2생활권M3) 계약 (-11/4) 1577-9430 충남 연기군 남면 세종시푸르지오(1-2생활권M3) 계약 (-11/4) 1577-9430 대구 동구 북부동 이시아폴리스더샵3차 2순위 접수 053746-6767 대전 서구 도안동 호반베르디움(도안17-2B) 3순위 접수 042544-4700 충남 연기군 세종시웅진스타클래스(1-4생활권M4) 2순위 접수 1577-5043
	발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유성한내(1A3-1) 당첨자발표 031555-1700 경기 용인시 용인동 대우푸르지오 당첨자발표 031718-123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2차(국민임대) 당첨자발표 1600-1004 인천 서구 구월동 컨트리스테이트(2차) 당첨자발표 1568-4452 전북 익산시 금강동 금강2차(국민임대) 1.2 순위 접수 063852-6627 경기 화성시 능동 푸르지오시티 계약 1577-4289
	계약	울산 중구 우정동 예안리원도2차 계약 (-11/7) 052282-6000 울산 중구 우정동 예안리원도2차 계약 (-11/7) 052282-6000 경기 하남시 무봉동 하남푸르지오시티 모텔하우스오피스텔 1588-5501 대구 북구 침산동 일성트루애 모텔하우스오피스텔 1600-1004
	접수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의왕포일2(국민임대) 2순위 접수 055269-0450 경남 진주시 가천동 진주가호(국민임대) 3순위 접수 1577-5043 충남 연기군 세종시웅진스타클래스(1-4생활권M4) 3순위 접수 041860-7970 충남 연기군 남면 세종시청마(1-1)공공임대 1순위 접수 041860-7970 충남 연기군 남면 세종시청마(1-2)공공임대 1순위 접수 041860-7970 충남 연기군 남면 세종시청마(1-3)공공임대 1순위 접수 041860-7970 충남 연기군 남면 세종시청마(1-4)공공임대 1순위 접수 041860-7970
11월 4일	발표	강원 삼척시 교통상치교동코아루터위 당첨자발표 033573-33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파주역사거리(2) 당첨자발표 1600-1004 경기 평택시 청북면 부영사랑으로(2) 당첨자발표 053255-8484 대구 중구 남산동 더루벤스 당첨자발표 053255-8484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힐카운티5단지 당첨자발표(국민) 1544-5550 전남 목포시 옥암동 우미린캐슬(12B) 당첨자발표 061262-0012 충남 당진군 당진읍 당진2차푸르지오 당첨자발표 1588-4801

*자료:부동산114

전국 12곳서 7279가구 공급

11월 첫째주 신규분양시장은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7279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도안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광역도시에서 신규분양 물량이 집중됐다.

대전·도안신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호반건설은 대전·도안신도시 17-2블록에 호반베르디움2차 957가구를 공급한다. 전용 84㎡형으로만 구성된다는 게 특징. 3.3㎡당 분양가는 평균 842만원 수준이다. 세종시에 국동건설이 웅진스타클래스 732가구를 공급한다. 전용 59-84㎡형의 중소형 면적으로 지어 지지만 소형면적에서 4베이(Bay)를 실현했다. 분양가는 3.3㎡당 740만

원 수준이다. 대구시 동구 풍무동에 포스코 건설이 이시아폴리스더샵 3차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 65~147㎡형으로 1686가구가 지어지는 대규모 단지다. 이미 공급을 마친 1.2차와 이후 공급되는 4차까지 더해져 모두 3600가구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에 대우건설이 지난 10월 31일부터 동탄푸르지오시티 1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총 690가구의 오피스텔로 계약면적 63㎡~68㎡로 구성돼 있다. 이명정 기자 lmj@

협찬: 연대산업개발

분양 소식

태영건설 '당산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 350실

태영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8번지 일대에 '당산역 데시앙루브'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당산역 데시앙루브는 지하 5층-지상 15층 1개 동으로 전용면적 23-28㎡, 4개 타입(23㎡ 28실, 24㎡ 42실, 25㎡ 28실, 28㎡ 252실) 총 350실 규모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의도·마포·복동은 물론이고 강남권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또한 영등포 인근의 쇼핑·문화·전통기관 업무용 사자와 신촌 대학가의 학생 등 두터운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올림픽대로-서부간선도로-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다수의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상혁 기자 daniel@

LH '서초 보금자리' 10년 임대주택 등 78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초서초 보금자리사업지구에서 최초로 10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82가구를 공급한다. 10년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해 10년간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서 202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4500만~5600만원, 임대료 55만~59만원 수준이며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으로 전



환할 수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10년 동안 집값을 납부하기(입주시, 4년차, 8년차, 10년 후)에 따라 분납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222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초기분납금 7235만 3000~8386만 4000원, 임대료는 73만 2000~84만 4000원 수준이며 임대료의 50%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 김경원 기자 kwkim@

SINCE 1975

원룸 | 고시원 | 오피스텔 | 빌딩 | 리모델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상담

국내최고실적·제일의 지명도

야촌주택건설(주)

YACHON 도시형생활주택 최고 전문가 그룹

02.577-9300

www.yachon.com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특별지원안내

국토해양부 2011년 2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 지원대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또는 시공인입을 득한 경우 (전용면적 12㎡² ~ 50㎡ 기준)
- 지원한도** 원룸형 전용면적 기준 ㎡당 80만원 최대 2,400만원
- 상환기간** 원룸형 3년에서 7년 상환
- 금리 특별지원** 2011년 말까지 한시적 연2% 우대금리
- 상담처** 우리은행 삼성역지점 02)558-5191 국토해양부 지정은행

도곡동 주택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저널 2011년 5월호 게재 성공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실천사례집 게재

양재동 주택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저널 2011년 4월호 게재 성공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실천사례집 게재

대치동 학원가 도시형생활주택 준주택

이문동 경희대후문 준주택 고시원

제기동 고려대학교옆 도시형생활주택

천호동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저널 2011년 8월 24일 게재

- 도시형생활주택 + 주민세대세대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4월초 시행)
- 주택임대사업 세제완화 (서울, 수도권: 5층이상 10년보유, 3층이상 5년보유)
-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규모 확대 (7월부터 시행)
- 30㎡ 이상 원룸형주택의 (실)구획 허용 > 투룸형 건축 가능 (7월부터 시행)

지역	면적	매매가(만원)	전세가(만원)	문의		
아파트명(주소)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1㎡=0.3025, 30㎡=24평형, 105㎡=32평형, 148㎡=45평형 단위:백만원						
서울(02)						
◇강남						
개포						
대청 (1992)	59	380	440	180	200	서탑공인
	85	580	640	280	300	2226-4500
우성6차 (1987)	75	700	730	260	270	부부공인
	89	900	930	300	330	576-6100
주공고층2단지 (1983)	82	680	720	300	320	베스트공인
	112	920	950	380	400	445-1004
논현						
두산위브 (2004)	87	600	620	300	330	대림공인
	107A	670	750	430	470	544-7713
대치						
개포우성1차 (1983)	102	1150	1350	430	500	근로농공인
	148	1800	2100	600	700	555-7755
개포우성2차 (1984)	102	1150	1350	430	500	근로농공인
	148	1800	2100	600	700	555-7755
대치1PARK (2007)	78	810	920	480	520	황금공인
	108B	1150	1250	650	700	3463-7474
상성래미안 (2000)	85	600	700	400	450	부동산뉴스
	108	900	1000	600	650	566-8383
도곡						
대림아크로빌 (1999)	178	1000	1200	650	700	월가리부동산
	201	1270	1400	700	750	576-0776
도곡역솔 (2006)	143A	1700	2000	850	950	황금공인
	167	2000	2400	950	1200	3463-7474
삼성 (1991)	82	630	680	290	310	리더스공인
	105	970	1100	420	450	2057-4949
상성래미안 (1987)	119	980	1200	590	620	우리부동산
	157	1300	1600	750	800	3463-7474
한신MBC (1988)	103	730	800	380	400	더보공인
	138	1050	1180	450	500	574-7588
삼성						
상13차 (1983)	117	900	1000	300	350	학사공인
	141	1300	1450	400	450	545-5959
홍실 (1981)	118	1000	1100	330	350	오성공인
	179	1800	2000	500	550	514-5900
LG선릉역 (1984)	488A	250	270	160	170	더하우스공인
	656B	370	400	220	260	547-1511
압구정						
신현대 (1982)	115	1300	1500	350	450	신라공인
	127	1350	1500	350	450	511-3200
한양1차 (1977)	86	820	850	200	220	LBA압구정
	89	1030	1050	250	270	3446-2442
한양2차 (1981)	115	1350	1450	300	350	인터넷공인
	174	2000	2200	500	600	549-6114
역삼						
개나리푸르지오 (2006)	109A	970	1150	590	640	진산리공인
	166A	1500	1600	720	770	568-4011
대우디오빌 (2002)	52	230	230	170	180	HS공인
	66	300	310	190	200	555-0274
일원						
개포우성7차 (1987)	88	680	730	300	350	부동산뱅크
	106A	780	900	400	430	3411-4980
푸른마을 (1994)	83	510	600	280	330	엘리트공인
	104	700	800	380	450	2226-6644
한솔 (1993)	78	640	670	290	320	고려공인
	101	870	960	360	450	459-4455
청담						
삼익 (1980)	115	950	1050	320	370	강남공인
	152	1500	1700	380	440	542-3535
◇강동						
고덕						
고덕서명한라 (1984)	42	390	430	40	50	한덕공인
	56	490	530	60	70	3013-0300
신동야차 (1983)	92	440	460	160	170	강동공인
	112	520	540	180	190	477-8959
신동야차2차 (1983)	62	300	315	110	110	강동공인
	79	380	395	140	150	477-8959
둔촌						
둔촌주공4단지 (1980)	82	650	680	160	180	둔촌1번지
	112	810	870	200	250	486-7784
중앙하이츠 (1995)	85	280	310	180	190	반석공인
	109	380	430	220	230	482-9900
명일						
고덕주공9단지 (1985)	102A	490	520	220	250	신용공인
	109A	490	520	220	250	481-7200
한양 (1986)	102	530	570	280	300	성우합동
	138	650	720	320	360	481-8233
상일						
중앙하이츠 (1992)	82	320	340	140	150	강동공인
	102	430	440	150	200	428-4400
성내						
청구 (1999)	85	310	345	220	230	코오롱공인
	112	460	540	260	270	482-0114
◇강북						
경남아너스빌 (1356) (2003)	87	250	310	170	180	한미음공인
	109	350	410	230	250	963-0029
상라신아아 (2003)	105	350	380	200	230	클릭공인
	137	450	480	200	230	989-8946
번						
신원 (1999)	79	230	240	130	140	은성공인
	105	320	340	170	170	980-8500
해모로 (2000)	109	350	360	200	210	하나공인
	155	510	550	230	250	945-0999
◇강서						
가양						
도시개발9차 2단지 (1993)	56	200	220	120	130	남산공인
	69	260	280	140	150	2659-6000
둔촌						
대림 (1995)	115	490	520	260	260	대림공인
	152	630	700	300	330	2658-8989
등촌동1PARK (1단지) (2003)	170A	810	1000	350	400	114공인
	204	1000	1300	380	450	2646-5600
상성현사빌 (1998)	82	260	310	170	190	한사랑공인
	109	400	460	220	240	3662-5949
방학						
도시개발11단지(정미) (1994)	56	170	190	110	120	상한공인
	83	260	300	150	160	2661-5800
동성 (1993)	81	330	350	180	190	미래공인
	106	430	470	220	240	2666-9933
방학한진로 (2004)	81	270	310	150	160	114비전공인
	105B	410	480	180	200	2662-0040
영랑						
금호타운 (1998)	79	320	360	200	220	테마공인
	107	450	450	220	240	2658-4980
우성1차 (1990)	92	270	290	160	170	대우공인
	105A	355	395	190	205	2668-6989
한화공예그린1차 (2005)	110	620	670	270	300	2646-5600
회곡						
대림 (1992)	109	330	360	160	190	명성공인
	142	430	470	200	220	2695-9988

지역	면적	매매가(만원)	전세가(만원)	문의	
아파트명(주소)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서울(02)					
◇강남					
주간 매매·전세 동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개월만에 하락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10월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된 물건이 나왔다. 매매시장에서 호가가 소폭 빠졌다. 다가 매물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던 강남 개포 재건축 시장이 선거 이후 매수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룰 때도와 매수 모두 한산했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2%) 신도시(-0.01%) 수도권(-0.01%) 모두 하락세가 계속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개월만에 하락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10월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된 물건이 나왔다. 매매시장에서 호가가 소폭 빠졌다. 다가 매물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던 강남 개포 재건축 시장이 선거 이후 매수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룰 때도와 매수 모두 한산했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2%) 신도시(-0.01%) 수도권(-0.01%) 모두 하락세가 계속됐다.					
서울은 강동(-0.11%) 금천(-0.05%) 강남(-0.04%) 영등포(-0.04%) 송파(-0.02%) 양천(-0.02%) 용산(-0.02%) 등이 하락했다. 수장 교체에 따른 사업 조정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조정이 일부 나타났고, 추가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신도시는 거래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분당(-0.03%)만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분당은 거래비수기로 중소형 산 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될 뿐 중대형은 매수세가 거의 없어 가격이 하락했다. 수도권 경기침체, 비수기 탓에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거래가 많지 않았다.					
서울은 강동(-0.11%) 금천(-0.05%) 강남(-0.04%) 영등포(-0.04%) 송파(-0.02%) 양천(-0.02%) 용산(-0.02%) 등이 하락했다. 수장 교체에 따른 사업 조정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조정이 일부 나타났고, 추가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신도시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강남(-0.01%)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미미하게 오르세를 보였으나 전세수요가 줄고 거래가 한산					
광명(-0.04%) 의왕(-0.04%) 부천(-0.03%) 성남(-0.03%) 안양(-0.03%) 고양(-0.02%) 과천(-0.02%) 등이 하락했다. 지난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서울(-0.01%)이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이 거래 비수기 여파와 단기간 가격상승에 따른 부침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약세를 보였다. 중구(-0.18%) 금천(-0.10%) 노원(-0.07%) 도봉(-0.07%) 강북(-0.06%) 강동(-0.05%) 송파(-0.04%)					

올 김장비용 양념값 > 배추값

고추·새우젓값 등 올라 전체비용 80% 차지 4인가족 기준 24만원... 배추·무가격은 하락

배추와 무 등 주재료 가격이 50% 이상 떨어졌지만 김장비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추·새우젓 등 부재료 가격이 폭등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하지만 전체 김장 비용은 배추·과등을 겪은 작년에 비해 8%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에서는 올해 4인 가족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작년과 비교한 결과 전체 김장 비용은 작년보다 8.8% 낮아졌지만 마른고추, 새우젓, 소금 등 부재료값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4인 가족이 배추 20포기와 무 10개로 김치를 담았을 때 비용은 24만6460원으로, 작년(27만188원)에 비해서는 비용이 낮아졌다. 작년에는 물량 부족으로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재료 상품의 비중이 44%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22%로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마른고추, 새우젓, 소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양념 값은 19만3060원으로,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6%에서 78%로 증가했다.

특히 새우젓(2kg)은 작년 1만1000

원이면 장만할 수 있었지만 현재 2만5920원으로 값이 135% 이상 증가했다. 고춧가루도 5만400원에서 9만5400원으로 88% 이상 가격이 뛰었다.

주재료의 가격 하락세는 김장철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작년 배추값이 전정부지로 오르자 농가들이 올해에도 가격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을 배추 재배면적을 작년보다 10% 이상 늘리는데 추후 추수 이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배추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 배추의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1월까지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의 재배면적을 15% 가량 늘려 올해 배추 가격은 본격적인 김장철인 이번 주부터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가격이 많이 오른 부재료는 올 김장철에도 가격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고추는 6월 하순부터 지속된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데다, 강원 지역의 폐작 면적이 늘면서 출하량이 줄어들어 도매가격이 30~40% 올랐다.

올해 주요 고추 생산지 중 한 곳인 충북 괴산을 비롯한 충청도 지역은 탄저병이 특히 심하게 돌아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가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김장의 주요 부재료로 꼽히는 소금도 올해 초 일본 방사는 사고 이후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확대돼 가격이 올랐다. 전일염은 평균 30~4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이선에 기자 isa@



수능 D-10... 엄마의 기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0일 오전 우이동 도선사를 찾은 학부모들이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근로자 월급 서울 가장 높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근로자들의 월급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만300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자 1인당 월급여(정액+초과 급여, 상여금+성급금 제외)는 24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92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 282만2000원, 전남 255만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의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울산은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어 임금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통일염원담아 철책로 걷는다 박영석 대장 끝내 전설로...

'2011DMZ 접경 트레킹대회'

내달 5일 김포~애기봉 6.8km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민통선과 DMZ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따라 걷는 '2011DMZ 접경 트레킹대회'가 11월 5일경기도 김포시 국제조각공원과 남방한계선 애기봉구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대한레저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김포시와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북한과의 거리 1.8km 지척의 남방한계선과 민

통선 구간에서 북한 땅을 보고 걸으며 분단 현장을 체험하는 행사다.

오전 9시에 김포국제조각공원에 집결, 조각리 민통선과 임진강변의 철책선을 따라 애기봉까지 6.8km를 걷는 코스다. 또 걷는 동안 누렇게 익은 김포평야를 걸으며 정경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족레저 여행이다. 해병대 군부대 견학과 군의장대 및 군악대의 공연, 통일 염원 철책선 리본달기 및 다양한 문화 행사 이벤트가 진행되어 볼거리도 다양하다. 참가 및 자원봉사 접수문의: www.koleco.or.kr /02-588-6700 유충현 기자 lamuziq@

내달 3일 영결식 '산악인의 장'으로

신동민·강기석 대원도 함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아 루트'를 개척하다 지난 18일 실종된 고(故)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처음으로 '산악인의 장'으로 치러진다.

대한산악연맹은 30일 고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이 한국 산악계에 미친 영향과 국민의 애도 물결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산악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산악인의 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산악인으로서 치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장례식인 '산악인의 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석 탐험대의 분향소는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되며 합동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에 엄수된다.

영결식은 대한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을 장례 위원장으로 하고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등 산악단체와 골드윈 코리아, LIG손해보험 등 후원사와 동국대학교 산악회 등 각 대학 산악회 등이 모두 참여한다.

대구에 연고가 있는 신동민(대구대), 강기석(안동대) 대원을 위해서



는 대구에 제2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산악연맹은 대구의 제2분향소 설치를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한편, 히말라야에서 사고가 발생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탐험대원들의 유골을 태우는 '천도제'를 카트만두 현지의 사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장례에서는 유골을 태우지 않고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분향소에는 유골함이나 유골함 없이 영정사진만 놓이게 된다.

정아를 기자 jar43@

내일의 날씨

☀ 해돋이 05:56 해질 17:35 🌧 달출 12:18 달진 22:39



전국 맑음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가 되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눈·비율 확률	
100	0
오전	0
오후	0

※ 자료 : 기상청

직장인 **新** 풍속도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생활 4년차 김모(30·남)씨는 최근 차수는 교통비 때문에 버스 한두 정거장이나 지하철 한 정거장의 거리는 걸어 다닌다.

교통비 아끼려 위킹출근족 늘고 있다

김씨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내년으로 계획했던 승용차 구입도 포기했다. 현재 택시이용을 자제하고 버스와 지하철 주로 이용하고 그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대중교통비를 인상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한숨만 내쉬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해결하는 이른바 '위킹족'이 늘고 있다.

김씨도 이 분류의 한 사람이다. 여의도 한 금융권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는 올 여름까지만 해도 정장차림에 3~4cm의 굽이 있는 정장구두를 신고 출근했다. 김씨는 최근 이전보다 걷는 횟수가 늘자 정장구두보다 발 건강을 위해 편안한 캐주얼화로 바꿨다. 종전의 정장구두와는 달리 세로 구입한 편안한 신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발의 피로가 빨리 찾아오는 정장구두보다 자주 걸어도 편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인상 부담
정장차림+캐주얼화 직장인 급증
업계도 편안한 스타일 제품 출시



안한 구두로 바꾸니 걷는데 안성맞춤"이라면서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캐주얼화를 자주 신고 다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를 비롯해 회사들이 밀집한 종로, 강남 지역에도 김씨와 같이 편안한 신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는 남자뿐만 아니라 힐을 신

던 여성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정장차림에 평균 6~7cm의 높은 굽을 주로 이용하던 여성들은 요즘 굽이 낮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빈도가 늘고 있다. 여성 워킹족들에게는 멋을 낼 수 있는 힐이 요즘시대에는 비실용적인 신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모(31·여)씨는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는 걷는데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굽이 낮은 구두나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워킹족들이 하나둘씩 늘자 관련 업계는 오래 걸어도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스타일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한 유명브랜드 회사 관계자는 "최근 편안한 신발을 찾는 직장인이 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예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에 이은 또 하나의 역작

공부의 처음과 끝은 사람이다!



정진홍의 사람공부
사람을 아는 것의 힘

인문의 끝은 사람공부다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정진홍 박사의 또 하나의 역작


화제의 베스트셀러

무라카미 하루키, 이태석, 존 레논, 안중근, 체 게바라, 반 고흐.....
10년간 500여 명의 사람을 공부한 그 성찰의 기록!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한 편 한 편에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이 더해져 독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간다.


사람을 아는 것의 힘
정진홍의 사람공부
정진홍(중앙일보 논설위원) 지음 / 값 15,000원

▼정진홍의 인문경영 시리즈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3

각 권 15,000원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2

값 12,000원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인생의 굽이길에서 공자를 만나다



인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 읽어야 할 논어 101수
인생살이에는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많다. 먼저 먹고 자며 읽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향기가 나도록 가꾸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신정근 지음 / 값 15,000원

명재상 류성룡 후손... 한국 防産 개척

한국 명문가를 찾아서

⑩ 류진 동산그룹 회장 가문 <끝>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명재상인 서예 류성룡 선생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풍산 류씨 가문은 재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류진 동산그룹 회장은 류 선생의 13대손으로 아버지인 고 류찬우 선대회장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풍산그룹은 류성룡의 후손답게 “선조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류 창업주의 확고한 인성관을 2세 경영인 류진 회장에게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중산급속을 세웠다. 1970년에는 경제공업화를 위한 5대 핵심사업체의 하나로 지정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방위산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소구경탄·박격포탄·직사포탄을 개발하는 등 군에서 쓰이는 전 품종을 생산해 95%의 국산화하는 성과를 냈다.

1992년에는 동제품 수출증대를



류진 회장

성명	주요경력
고(故)류찬우	풍산그룹 창업주
류정	PMX인더스트리 사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서 경영학을 수료했다. 덕분에 영어 회화도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 류 회장은 미국의 정재계에 인맥이 넓은 소위 '미국통' 이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방미 수령에 큰 역할을 했다. 풍산금속공업에는 1982년 입사해 1996년 풍산그룹 대표이사 사장직을 지냈으며 부진이 속환으로 별세한 이듬해인 2000년 4월 그룹회장직에 올랐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기업인자문기구 한국위원과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장직도 함께 맡고 있다.

류 회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과 혼인했다. 부인인 노혜경씨는 미국 스탠퍼드 법대 출신이다.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이들 부부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러 화제를 모았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정아름 기자 jar43@

故류찬우 창업주, 서예 가르침따라 자주국방 실천 고향에 풍산중·고교 세워 후학 양성 힘쓰기도 해

위해 미국 현지법인인 PMX 인더스트리를 설립, 세계시장으로 공급처를 확대했다. PMX는 한 때 류 창업주의 장남인 류정 씨가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류 창업주는 병산교육재단을 만들어 고향인 경북 풍산에 풍산중·고등학교를 세우는 등 후학양성에

힘썼다. 류성룡 선생이 가르침을 전수하던 병산서원 일대 땅을 기증하기도 했다.

류 창업주의 2남2녀중 차남인 류진 회장은 일본에서 아메리칸고를 졸업해 일본어가 능통하다. 이후 그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다트머스대학원에

류찬우 풍산그룹 창업주는 한국 방위 산업을 개척한 공로자다. 유비무환과 자주국방이라는 방위산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바로 서예선생의 가르침이자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이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조폐공사에서 류 창업주를 흉간적과 예구를 물리친 고려 최후의 명장 최영과 더불어 인물메달이 출시되기도 했다.

그는 1941년 대구공립직업학교를 졸업해 1968년 구리 가공공업체인

“창조적 디자인으로 명품 가구 생산”

에몬스 '디자인코리아' 총리·우수디자인이상 받아

가구업체 에몬스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최 '디자인코리아2011' 우수디자인(GD)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과 우수디자인이상을 휩쓸며 2관왕에 올랐다.



아울러 앙트와네트, 플라멩코, 부케 집실세트도 나란히 우수디자인에 선정돼 에몬스는 올해 가구업계 최대 인증 보유업체로 뽑혔다. 특히 이번 우수디자인(GD) 선정으로 에몬스는 12년 연속(2000~2011년)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러한 에몬스의 '디자인 명가' 등극을 두고 업계는 김경수 회장(52·사진)의 32년 장인정신의 힘

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볼트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이 반영돼야 한다”며 매주 월요일 디자인회의를 주재한다.

에몬수가구에는 전체 직원 중 10%인 25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일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가구업계에선 디자인과 품질이 경영의 모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를 물려줄 명품가구는 그렇게 탄생한다는 것.

김 회장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인테리어를 선도하기 위해 디자인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조적인 디자인과 품질경영을 통해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명품가구를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규귀 기자 kkk@

현대차 '터키 대지진' 40만달러 성공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 사진)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터키의 재난 복구 및 재해민 구호를 위해 성금 4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현대차가 30만달러, 기아차가 10만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999년 터키 진출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 햇빛 장학회(Hyundai Torches)'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 단체에 장애인차량 기증, 장애인 문화체육시설 후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터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터키는 1997년 현대차가 글로벌경영 초기에 해외공장을 설립한 전략 국가로, 2007년 기준 6만대 규모에서 10만대 규모로 증설하는 등 현대자동차 글로벌 생산체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판매에서도 현대차가 지난 2009년 터키 승용차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올해도 지난 9월까지 3만4097대를 판매하는 등 터키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터키법인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 햇빛 장학회(Hyundai Torches)'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 단체에 장애인차량 기증, 장애인 문화체육시설 후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터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황영조 “12월 장가갑니다”

‘민주주의 영웅’ 황영조(41·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이 12월 초 장가를 간다. 황 감독은 “고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12월 초에 적당한 길일을 잡아 화촉을 밝힐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황 감독의 배필이 될 이 여성은 이

화여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현재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생으로 이미 불혹을 넘긴 황 감독은 “올해를 넘기지 말라는 가족의 권유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됐고 연말이면 틈을 이르고 전지훈련을 가야 하기에 12월 초쯤으로 길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투데이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중현	광고국장 김진택
정치경제부 (02)799-2655	증권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62	국제부 (02)799-2650
사회생활부 (02)799-2661	여론독자부 (02)799-2657	사진팀 (02)799-2633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스포츠문화부 (02)799-2669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03 / 2604	

www.etoday.co.kr

150-774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텀빌딩 6F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4-1003

데스크 칼럼

토론은 없고 주장만 있는 사회



황익신

사회생활부장

“단답형으로 답하세요.” “저도 말 좀 합니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후보 박원순씨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TV 토론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시간은 토론이란 말이 무색하리만큼 일방적인 폭로와 주장으로 일관했다. 박원순 후보의 답변은 언제나 단답식이어야 했고, 이마저도 중간에 멈춰야 했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주도권 토론시간에 절반 이상이 나 후보의 답변과 반박으로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두 후보자의 TV 토론 방식은 한국사회 토론문화의 극과 극을 보여줬다.

10·26 선거, 토론문화의 승리

두 후보의 토론은 상호토론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에서 해답을 모색하는 시민사회의 토론문화와 일방적 주장과 선언에 익숙한 정치권과 기득권의 토론방식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선거결과를 놓고 MB정부의 실정이나 박근혜-안철수 효과와 같은 외부 요인이 선거결과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대세지만, 적어도 필자의 생각엔 이번 선거의 판세는 TV토론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과 훈계만 있었던 나경원 후보를 통해 유권자들은 MB정부나 오세훈 시장 시절의 무소통(無疏通)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을 것이다.

토론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discuss'는 '분산시키다', '정반대의 일을 하다'라는 의미의 'dis'와 '때려부수다'를 의미하는 'cuss'가 합쳐진 단어다. 말하자면 정반대의 것을 때리고 깨내어 실제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토론이다.

'discuss'는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담론'이라는 단어로 불린다. 담론(談論)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이다. 하버마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합리화한 논의를 거쳐 이성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디스커스·diskurs)을 담론이라 불렀는데 이는 이성적 사회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나경원 후보의 소통방식은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나 후보의 소통방식은 MB정부의 소통방식이기도 하다. MB정부에는 토론 혹은 담론(discuss)보다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만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MB정부에서는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거나 개정

할 때 흔히 거치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절차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대신 진정부 성향의 언론을 통한 여론 몰이에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완성된 제도나 법은 다시 진정부 성향의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프로파간다)한다.

재계와의 소통방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유통업체간 벌인 수수료 인하 논쟁이나 복지부와 재약업계의 약가 인하를 둘러싼 논쟁도 사실 토론이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재계는 최근 재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리한 언론보도를 정부의 언론플레이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론플레이어를 통해 재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낸 후 불타다 압박하는 수순을 거치는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라는 것이다.

MB '불통의 정부' 오명 벗어야

이렇다보니 정부와의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의 절차일 수밖에 없고 여론에 밀린 재계는 울며겨자 먹기로 잘못된 정책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진정부 성향의 언론에 발가벗겨질 각오를 해야 반기라도 들텐데 그 정도의 감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앞다투어 투자 축소나 연기를 계획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의지던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둔화 등 대외환경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 정부도 여기에 한 몫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살려달라는 기업에 오히려 이익을 줄이라는 등 상생기금을 내놓으라는 등 압박만 하고 있으니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혹자들이 이번 정부를 '불통(不통)의 정부'라 폄하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philla@

인사

◆이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겸 증권부장 송광섭 △온라인뉴스부장 김두탁 △산업부 차장 겸 산업3팀장 이학범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 감사담당관 김병열 △재산제도과장 이상원 △관세제도과장 안세준 △국세금융과장 김이태 △외부과장 이상원 △서기관 승진 △1차관실 전기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원원 △법사예산과 이보인 △신성장정책과 정남희 △서비스경제과 김시동 △재정정책과 나상근 △인재경영과 윤채영 △금융협력과 심규진 △남북경제과 서규식 △외부과장 장보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윤창복 △ 감찰담당관실 류덕환 △ 심사1담당관실 김성원 △ 역외탈세담당관실 임병호 △ 부가가치세과 김준배 △ 법인세과 김정주 △ 재산세과 최대열 △ 조사2과 강상식 △ 국제조사과 박정렬 △ 세원정보과 김광삼 △ 운영지원과 이원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

○조사3국 조사1과 박창규 △ 조사4국 조사2과 김익태 △ 조사3과 윤종태 △ 국제조사관리과 신우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유영 △ 조사2국 조사3과 김성수 △ 조사3국 조사1과 김광수 △ 대전지방국세청 법무과장 구치서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재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현종현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정식 △ 조사2국 조사2과장 박선우 (서울=연합뉴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 전문대학원장 홍정식 △교무처장 정성균 △학생처장 배재근 △기획처장 안재경 △정보처리센터소장 이영일 △생활관장 이명호

◆KBS △부산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장 김기호

○전 5시 02-2227-7587

▲박종천(새별공안 대표) 중응(장강만 대표) 중희(주부씨 모친상,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 팀장)씨 빙모상 = 30일 오전 3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일 오전 8시 02-2072-2027

▲하남세(전 국민일보 사장)실장)씨 모친상, 허민영(전 스포츠중가 기자)씨 조모상 = 29일 오전 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11월1일 오전 10시 031-900-6958

▲홍수원(KBS이사)씨 부친상 = 30일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1월1일 오전 5시 30분. ▲장명수(전 스포츠 한국 편집위원), 장명희(주부) 모친상, 박기운(전 데일리 포커스 편집위원), 최지운(한국 IT감리컨설팅 대표이사) 장모상 = 30일 오전 2시 20분 국립중앙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6시 02-2262-4820

▲이광수(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씨 별세 = 29일 오후 12시 40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월1일 오전, 02-2227-7580

“아빠와의 스킨십이 자녀의 창의성과 성적을 향상시킨다!”

아버지 리더십 Father Leadership

아버지의 '거울 교육'이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장경근 발서량 전문가 · 정채기 영유아보육과 교수 지음 | 256쪽 | 값 12,000원

www.shinwonbook.co.kr 02)3664-2131

길거리 음식 이제는 옛말

웰빙 웃입은 떡볶이의 변신



올리브 떡볶이

길거리 음식으로 취급받던 떡볶이가 갖가지 웰빙 재료와 만나 프리미엄 외식메뉴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예전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였지만 브랜드화를 통해 식재료와 맛, 인테리어, 서비스 등의 질을 높였다. 특히 신메뉴 개발, 사이드 메뉴 확충 등의 차별화를 통해 전문화되며 외식 메뉴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전문점 외식메뉴로 업그레이드
견과류·곤약 등 활용 다양한 맛
클로렐라·코코아... 떡색깔 화려
크림 소스로 젊은 여성 입맛 꼭



먹물 포카치아 크림 떡볶이



아딸 매장

한식 세계화 바람에 따라 떡볶이는 세계 어느 요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영양이나 맛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전문점들의 등장으로 점점 고급 요리로 인식되는 추세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쌀떡에 물과 소금, 쌀만 사용한다.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떡을 만들기 위해 특수 떡 조형기계를 설치했다. 아딸의 쌀 제조 공장은 전 제조 과정을 자동화해 떡 조형 시 높은 압력과 회전 속도를 이용해 식감과 보존력을 극대화 했다. 더불어 포장시 쌀떡의 식감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보존 포장을 하고 있다. 또 면역력 증진에 좋은 마늘을 이용한 마늘크림 떡볶이, 몸에도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견과류 떡볶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은 곤약 떡볶이 등으로 웰빙을 강조한 프리미엄 외식 메뉴를 선보

이고 있다. 더불어 아딸은 먹고 나면 개운한 뒷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천연 양념장을 개발했다. 쫄깃한 식감이 좋은 쌀떡과 추억의 떡볶이 맛을 느낄 수 있는 밀떡, 두 가지를 준비해 고객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자연에 품은 '요런떡볶이'는 약 80톤에 이르는 쌀을 이용해 신개념 웰빙 떡볶이를 개발했다. 떡의 색은 클로렐라, 코코아, 보리, 녹차, 단호박, 백년초 등 몸에 좋은 웰빙 재료를 사용해 구현했다. 사각형 모양으로 떡을 만든 이유는 소스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특수제작한 떡제조기로 만들어지는 쫄깃한 순쌀떡에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로만 맛을 낸 깔끔하면서도 매콤한 소스는 요런떡볶이만의 특징이다.

특히 누룽지를 주재료화 한 누룽지정식, 누룽지떡볶이, 누룽지탕수육은 웰빙 메뉴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요런떡볶이 관계자는 "누룽지 메뉴로 예부터 한 국민들이 좋아하는 먹거리인 누룽지까지 도입시켜 젊은 이들의 입맛은 물론 중 장년층 고객들의 입맛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수 토니안이 대표로 있는 스텔스토어의 먹물 포카치아 크림 떡볶이는 젊은 여성층들 사이에서 웰빙 외식 메뉴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인체의 항암, 항균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오징어 먹물로 만든 포카치아 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텔스토어만의 비법 메뉴로 만들 까르보나라 떡볶이가 서로 어우러져 맛까지 있다는 평가다.

제너시스BBQ의 올리브떡볶이는 양질의 식재료와 천연감미료 사용을 강조한다.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메뉴다. 쌀떡볶이, 밀떡볶이 외에도 궁중떡볶이, 화이트떡볶이 등 다양한 퓨전 떡볶이를 선보였다. 튀김도 기본 메뉴 외에 맛탕, 치즈스틱, 고구마스틱 등으로 차별화했다. 속이식품은국내산 쌀떡 속에 치즈, 햄, 밤, 현미와 썬, 인삼 등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떡볶이떡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100% 국내산 쌀과 국내산 전일염만을 사용하며, 건강에 좋은 치즈, 썬, 밤, 현미 등을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간식인 떡볶이떡 안에 쏘옥 넣은 속속이떡은 아이들 영양 간식 및 여성들의 다이어트 간식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떡기떡기는 그간 분식체인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인공보존제와 합성색소, 그리고 멜라닌 등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해 웰빙 떡볶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떡기떡기의 관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떡기떡기의 건강먹거리 메뉴로는 해물이 들어가 개운한 해물떡볶이와 고소한 건강식 들깨떡볶이, 달콤한 허니떡기, 각종 튀김 및 닭가슴살로 만든 몸짱탕수육, 닭강정, 볶음밥에 신메뉴 돈가스외 쫄면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 죽순 떡볶이 레시피

웰빙 떡볶이의 소재로 좋은 것은 죽순이다. 아삭 거러며 씹히는 질감과 은은한 향미가 일품인 죽순은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 고급 요리 재료로 사용된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식용으로 채취하는 죽순은 4월부터 5월말 정도까지가 제철이다. 죽순은 키가 40~50cm 정도로 자랐을 때가 가장 먹기에 알맞다. 너무 어리면 무르고 너무 자라면 뻣뻣하다. 늦은 봄인 4월부터 캐기 시작해 5월까지만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죽순을 채취하여 식탁에 올리면 입맛을 돋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약선음식이 된다.



- 준비물 (2인 기준)**
죽순 100g, 가래떡 250g, 쇠고기 50g, 당근 1/3개, 맛타리버섯 40g, 청경채 50g, 양파 1/2개, 진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육수 1/2컵, 후추, 참기름, 깨, 식용유
- 조리 방법**
1. 죽순은 길이 1×5cm, 두께 0.5cm 크기로 자르고, 가래떡은 물에 담가놓은 후 건져낸다.
 2. 쇠고기는 다진 마늘, 간장, 설탕, 후추로 밑간을 해준다.
 3. 당근과 양파는 채를 썰고, 죽순과 함께 소금간을 하여 볶는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군 다음 밑간한 쇠고기를 볶다가 가래떡과 함께 육수를 붓고, 양념 재료를 넣어 볶아낸다.
 5. 떡이 적당히 익으면 볶아 둔 3의 재료를 넣고 후 참기름과 깨를 넣고 버무려 담아낸다.

- ▶ 비타민의 보고로 불리는 브로콜리를 사용한 떡볶이도 만들어보자.
1. 브로콜리는 한입 크기로 썰고, 캔 옥수수과 카테일 새우는 물기를 제거한다.
 2.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3. 물과 굴소스, 올리브오일을 넣고 끓이다가 떡을 넣는다.
 4. 떡이 말랑해지면 브로콜리와 새우, 캔 옥수수를 넣고 졸이다가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는다.
- ▶ 몸에 좋은 견과류를 이용한 떡볶이는 어떤가?
1. 다양한 견과류를 준비한다.
 2. 팬에 간장과 물, 올리브오일을 넣고 끓이다가 떡을 넣는다.
 3. 국물이 반으로 줄면 견과류를 넣고 졸인다.
 4.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한다. kkk@

www.luden.co.kr

치아건강을 위한 최선의 노력 _ 루덴치과의원

날아주신 은혜에 비할 수 없지만...

날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은 많지만 부모님이 편하게 웃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수 있게 루덴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치료 받으시고 밝게 웃으세요!!!
오늘 루덴치과 예약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한 임플란트 예약...
"루덴치과의원"
토요일 2시30분

루덴 치과 의원

LUDEN DENTAL CLINIC

대한치과 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10503-중-3107호

인터넷검색창에 **루덴치과의원**

• 명동점 T.02 757 2879 • 강남점 T.02 2051 2875 • 강서점 T.02 2668 4477 • 미아점 T.02 981 2442
• 구로점 T.02 2632 2879 • 남부터미널점 T.02 3487 0028 • 분당점 T.031 726 0772

구들방 누워 등지고 누마루 앉아 차 마시고



■ 전남 영암 한옥민박 '월인당'

잘 마른 소나무 장작 두어 개를 아궁이에 던져 넣자 금세 불이 옮겨 붙더니 장작 타는 정겨운 냄새가 좁은 뒷마당을 가득 채운다. 황토 굴뚝에선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불을 깔아둔 아랫목에 손을 넣는 순간 '앗 뜨거' 소리가 절로 튀어나온다. 영암 땅 너른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월출산과 은적산 사이에 자리 잡은 월인당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구들방의 추억'을 되살려 주는 소박한 한옥민박이다. 내력 있는 종택도, 유서 깊은 고택도 아니건만 주말마다 예약이 밀려드는 까닭은 황토 구들방에 등 지지는 그 맛이 각별해서다.

방 세칸에 대청·누마루·뒷마루가 전부 손님맞기 하루 전부터 아궁이에 불 때 월출산 위로 뜨는 달 앞마당 흰히 비춰 근처 도기박물관·도감사 등 둘러볼만



월인당 아궁이

모정마을 토박이인 김장오 씨가 월인당을 지은 것은 5년 전이다. 구례 사성암을 지은 김경학 대목과 강진 만덕산 기슭의 다산초당을 지었던 이춘흙 도편수가 1년 3개월간 함께 공을 들였다. 규모는 단출하다. 방 세 칸에 두 칸짜리 대청, 누마루와 뒷마루가 전부다. 담장은 대나무 울타리로 대신하고, 넓은 앞마당엔 잔디를 깔았다.
방 세 칸은 모두 구들을 넣고 황토를 깔 위에 한 지장판을 바른 '장작 때'방이다. 바닥은 뜨끈하고 위는 서늘하니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는 구조다. 한옥이라면 딱딱 그레야 한다고 생각해 구들방을 만들었지만, 덕분에 손님맞이 하루 전부터 아궁이에 불을 때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가 따른다. 바깥주인의 '장작 때' 수고보다 한수 위는 안주인의 '풀 먹이기' 정성이다. 한번 사용한 이불은 세탁

후 일일이 풀을 먹여 내놓는다. 손님 입장에선 절절 끓는 방에서 사각거리는 솜이불을 덮고 자는 호사가 고마울 따름이다.
월인당 세 개의 방은 저마다 특징이 있다. 마을 앞 너른 들과 월출산이 가장 잘 보이는 '들녘' 방은 측면 뒷마루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인당 현관이 걸린 정중앙 '초승달' 방에서는 마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 끝 '산노을' 방은 누마루와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 가장 인기가 많다. 방마다 욕실과 싱크대, 냉장고를 갖춰 먹고 자고 씻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집을 지을 때 뒷마루와 누마루는 특별히 공을 많이 들였다. 뒷마루는 집안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자 집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공간이다. 꼬마 손님들에게는 왕복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삼면이 특 트여 햇살과 바람과 달빛이 드나드는 누마루는 차 한 잔의 여유 혹은 술 한 잔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역할을 한다. 월출산 위로 보름달이 뜨는 밤 누마루에 나와 앉으면 '달빛이 도장처럼 짙히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안마당이 달빛으로 환하다.

집주인이 꼽는 최고의 달빛 풍경은 월인당이 아니라 마을 끝에 있는 원풍정(願豐亭)에서 바라보는 장면이다. 월출산 위로 동심 솟아오른 달이 저수지에 교묘한 빛을 풀어놓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것이다. 원풍정 기둥에는 이른바 '원풍정 12경'을 적은 12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지난들녘에 내리는 밤비, 구림마을의 아침밥 짓는 연기, 도감사에서 들려오는 석양의 종소리 등 '원풍정에서 내다보이는 12경'은 마을 밖에 시와 그림으로도 풀어 놓았다. 월인당에 묵는다면 꼭 마을 산책을 해보아야 하는 이유다.

월인당에 숙박하면서 돌아보기 좋은 곳은 구림마을, 도기박물관, 도감사, 왕인박사유적지 등이다. 모정마을 인근, 월출산 서쪽 자락에 자리 잡은 구림마을은 삼한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해 2,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향약자치규약인 대동계의 집회 장소이자 영암 3.1운동의 발상지였던 회사당, 도선국사 탄생설화가 얽혀 있는 국사암, 왕인박사가 서기 406년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는 상대포, 고려 공신 최지몽 등 4인을 배향한 국암사, 조제 문중 종가로 민속자료 제35호인 조종수 가옥, 한석봉과 어머니가 글쓰기와 떡 만들기 시합을 했으며 그 현관을 한석봉이 직접 썼다는 옥유당 등 유서 깊은 장소들이 마을 전체에 흩어져 있다.

영암도기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에 한반도 최초로 유약을 발라 구운 시유도기를 생산한 곳이 바로 구림이었다. 폐교가 된 구림중학교 자리에 2008년 4월 도기박물관이 신축 개관했다.

왕인박사유적지는 구림마을 동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일본에 한자와 유교를 전해 아스카 문화를



갈낙탕



도기박물관

씩박은 것으로 알려진 왕인박사의 자취를 사당과 전신관, 탄생지, 석상 등으로 복원해 놓았다.

신라 4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인 도선국사가 창건한 월출산 도감사에는 해탈문(국보 제50호), 마애래좌상(국보 제144호) 등의 유산이 남아 있다.

영암을 여행하면서 낙지요리를 맛보지 않으면 서운하다. 2번 국도변에 위치한 독천마을엔 영산강 하굿둑이 완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갯벌이 있었다.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30여 개의 낙지요리전문점만은 여전히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갈낙탕, 연포탕, 낙지초무침, 낙지구이 등 다양한 낙지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그 중 전라도 한우와 빨낙지를 말갈고 시원하게 끓여낸 갈낙탕이 독천마을 진미 중의 진미로 대접받는다.

황의신 기자 philla@

고승희의 중국여행

'정상' 없는 사막, 그 광활한 아름다움이란...

■ 아라산명 '바단지린 사막'

봄이면 어김없이 이런 뉴스가 들려온다. "내일은 중국의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히도 요즘 황사는 계절 구별이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계절에 상관없이 불어온다. 가을과 겨울에도 황사가 관측될 정도. 그 덕분인지, 우리나라 초등학생이면 '고비사막'이 중국에 있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는 아주 심각하다. 현재 전 국토면적의 27.5%가 사막이라고 한다. 무분별한 개간, 기온 상승, 강수량 감소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기 변화가 주요원인으로, 이웃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막은 커녕 이렇다 할 모래벌판도 없는 우리나라가 황사의 피해를 입고 있다. 황사는 사막의 2차 피해일 뿐,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토양이 침식되고 모래가 집적되면 서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다. 이는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생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나는 '사막 여행'을 예찬한다. 평생에 한 번 가볼 여행지로 주저 없이 '사막'을 꼽는다. 그 이유는 스티븐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잘 나와 있다. "인생이란 종종 길을 잃고,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며, 때로는 사면초가에 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빠져 나오고, 신기루를 쫓기도 하는 것이다. 한동안 길을 잃는 게 좋다. 다시 길을 잃는 과정의 연속이다. 인생의 대부분은 산이 아니라 사막을 달아나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네 인생이 산보다는 사막을 달아나는 구절에 절대 공감한다. 정상이란 뚜렷한 목적지가 정해져있는 산행보다 우리의 삶은 훨씬 복잡한 것이다. 그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가끔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 인생여정은 '정상'이란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인 사막을 달아나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고심해 세운 인생계획

이 때면 어긋나는 느낌이 들 때 '진짜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보라' 권하고 싶다. 사막의 허허벌판은 우리 내면의 침묵의 소리를 듣기에 가장 적합하다. 사막에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광대한 우주 중심에 나 홀로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가 바로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사막이 침묵으로 일깨운다.

이왕 가는 여행, 황홀한 절경을 품은 바단지린(巴丹吉林) 사막을 추천한다. 중국 내몽골자치구(內蒙古自治區) 서쪽 끝자락 아라산명(阿拉善盟)에 위치한 바단지린 사막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사막으로, 그 면적이 4만4,300㎢에 달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10만33㎢, 바단지린 사막이 얼마나 광대한 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바단지린은 타클라마칸과 퉁후의 명사산을 제치고, 중국국가지리가 뽑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다. 변화무쌍한 사구(砂丘)와 무려 100개 넘는 오아시스를 품고 있다.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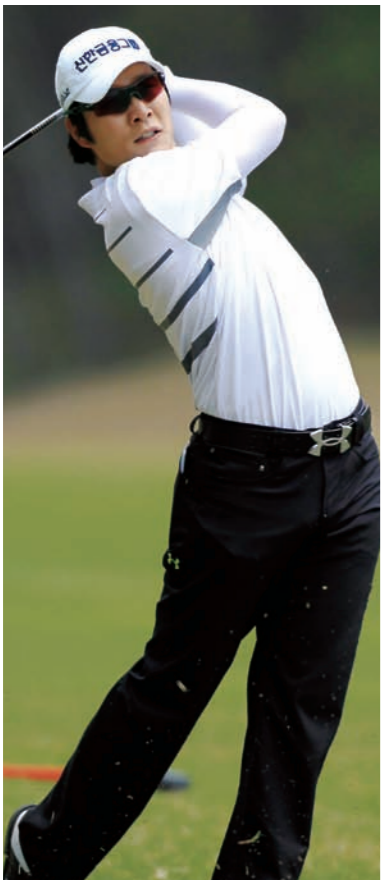


고 낮은 사구를 넘나들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짐차가 모험심을 고취시킨다. 수많은 오아시스와 사구를 넘어 하룻밤 머물 사막 한가운데 캠프까지 장장 4시간이 소요된다.

사막에 땅거미가 내리면 내가 서있는 이 땅이 더욱 광대하게 느껴진다. 사방이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들자 사막은 또 하나의 황홀경을 선사한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 은하수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 짜릿한 감동은 삶의 희열로 다가온다.

여행작가

4억5000만원 을 KPGA 상금왕 김경태



김경태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진 기록(?)을 세우며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상금왕에 올랐다. 김경태는 한국프로골프사상 처음으로 역대 상금왕 중 가장 적은 5개 대회에 출전해 획득한 상금만으로 상금랭킹 1위에 등극한 것. 김경태는 2007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상금왕 자리를 탈환했다.

김경태는 지난 9일 코오롱 한국오픈에 출전한 뒤 이후 시즌 마지막 대회인 NH농협오픈 등 3개 대회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김경태는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정상에 오르며 2억원의 상금을 챙긴데 이어 SK텔레콤(총상금 9억원),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0억원), 코오롱 한국오픈(총상금 10억원) 등 최고의 상금액이 걸린 대회만 출전해 총상금 4억 5177만원을 벌어들였다. 일찌감치 시즌 상금랭킹 1위에 랭크된 김경태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상금 레이스 경쟁자인 3위 홍순상(30·SK텔레콤·3억9226만원)이 컷오프됐고 2위 박상현(28·

양그레김골프·3억9847만원)도 공동 6위에 그쳐 상금왕을 확정 지었다. 사실 5개 대회에 출전에 상금왕에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특히 해외투어에서 주로 활약하는 선수가 상금왕에 오른 경우도 없었다.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2006년과 2010년에 단 2개 대회에만 출전해 상금랭킹 4위, 최경주(41·SK텔레콤)는

미국만이 지난 2008년 6개 대회에 출전해 577만 5000달러를 벌어들여 상금랭킹 2위에 오른 바 있다. 한편 김경태는 상금왕에 오르기도 내년도 60위까지 주어지는 코리아투어 출전권을 받지 못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정한 코리아투어 규정 제2장 10조(13페이지)를 보면

5개 대회만 출전 최소대회 상금왕 기록 내년 코리아투어 출전권 획득에는 실패

2008년 국내 3개 대회에 출전해 상금랭킹 4위에 올랐다. 2009년 이후 KPGA투어 상금왕에 올랐던 선수 중 2004년 상금왕인 장의제(38)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수는 시즌 10개 대회 이상에 출전했다. 장의제는 그해 우승 기록은 없지만 총 8개 대회에 나서 1억 4308만원을 획득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시즌 중 10개 대회 미만을 뛰고 상금 순위 상위권에 오른 선수는 드물다. 타이거 우즈(36·

'코리아투어 상금 순위 60위 이내에 있는 선수(미국, 유럽, 일본투어 시드권 보유 선수 포함)가 차기 년도 코리아투어 상금 순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프로골프투어(KGT)로부터 상금이 인정되는 대회 중 6개 또는 그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경태는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못해 시드순위 6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상금왕은 출전 대회수와 관계 없이 안성찬 기자 golfahn@



로리 맥길로이(왼쪽)가 상하이 마스터스 최종일 경기에서 이긴 뒤 앤서니 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

'뒷심부족' 앤서니 김 연장분패

상하이 마스터스 맥길로이에 제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가 레이크 말라렌 상하이 마스터스(총상금 500만 달러)에서 아쉽게 연장전에서 패했다. 앤서니 김은 30일 중국 상하이의 레이크 말라렌 마스터스코스(파72·7585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쳐 '유력신성'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 첫번째 홀에서 파에 그쳐 버디를 잡아낸 맥길로이에 졌다. 우승상금 200만달러는 맥길로이 몫이었다.

앤서니 김과 맥길로이는 첫번째 연장전에서 똑같이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에 빠뜨렸다. 하지만 두 선수는 볼을 핀에 잘 붙였다. 앤서니 김이 1m 퍼팅이 홀을 놓친 반면 맥길로이는 70cm의 퍼팅을 홀로 연결시켰다. 세계골프 상위랭커 30명을 초청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은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쳐 한터 메이언(미국)과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7위,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9위에 랭크됐다. golfahn@

19살 이상희 프로 최연소 우승 양희영 국내서 올 시즌 첫 입맛춤

NH농협오픈 생애 첫 승

'무명' 이상희(19·캘러웨이)가 짜릿한 생애 첫 승과 동시에 내년 정규투어 출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상희는 30일 경기도 여주 스키야벨리 CC(파71·6868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투어(KGT) NH농협오픈(총상금 5억원) 최종일 경기에서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쳐 류현우(30), 김승혁(25·현대스위스금융그룹)을 1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황재민(25)은 이날 16번홀까지 버디만 7개를 몰아치며 맹추격 나섰으나 17번홀에서 범한 더블보기가 우승발목을 잡았다. 1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불안한 출발을 한 이상희는 2, 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았다. 이후 8번홀까지 파행진을 벌인 이상희는 9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후반들어 14번홀에서 보기로 1타를 잃었지만 15번홀부터 연속 3개홀에서 버디에 성공했다. 이상희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프로에 데뷔, 올해부터 정규투어 출전했다. 특히 이상희는 19세 6개월의 나이로 우승해 김비오(21·넥스)가 보유했던 프로대



이상희

회 최연소 우승 기록(19세11개월)의 벽을 깨 우승 의미를 더했다. 이번대회 전까지 이상희의 올 시즌 상금순위는 74위로 상금순위 60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시드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이상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시드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우승

양희영(22·KB금융그룹)이 국내 무대에서 친근 같은 시즌 첫 승을 올렸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양희영은 30일 인천 영종도 스키야벨리 CC 하늬코스(파72·6583야드)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최종일 경기에서 버디와 보기를 3개씩 주고 받으며 이븐파를 쳐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쳤다. 2번홀과 4번홀에서 버디와 보기를 주고 받은 양희영은 6번홀에서 버디를 골라냈다. 양희영은 후반들어 10번홀에서 버디를 챙기며 우승 썩기를 막는 듯 했지만 12, 13번홀에서 연속보기를 범하며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이후 흔들리지 않고 남은 홀에서 파세이브 하며 안정적인 경기로 후반을 마무리 했다. 지난 2009년 LPGA에 진출한 양희영은 미국무대에서는 물론 올 시즌 한번의 우승을 못했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최나연(24·SK텔레콤)만큼이나 맹활약하고 있지만 우승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LPGA에서 우승 소식 없는 양희영



양희영

이지만 늘 가능성은 갖고 있었다. 올해 LPGA 투어 상금랭킹 9위에 랭크돼 있고 세계랭킹도 여섯 단계나 뛰어 12위가 됐다. 드라이브 평균 거리는 258.80야드로 최나연(255.4야드)보다 앞서있고 그린적중률 역시 71.5%로 최나연(70.4%)을 따돌리고 있다. 여기에 올 시즌 톱10도 7번이나 들어 모건 프리셀(미국)과 공동 10위에 올라있다. boomi@

日그린 활약 배상문 아쉬운 2위

ABC챔피언십 연장 6번째 홀 패배

'장타자'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사진)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마이나마리 ABC챔피언십(총상금 1억5000만엔)에서 아쉽게 2위에 그쳤다. JGTO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배상문은 30일 일본 효고현 ABC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대회 4라운드에서 8타를 줄여 합계 15언더파 273타(69-70-70-64)를 쳐 가와노 고이치로(30·일본)와 동타를 이겼다. 배상문은 연장 여섯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은 가와노에게 아쉽게 우승컵을 내줬다. 이날 배상문은 전반에 보기없이 버디만 6개 골라냈다. 후반들어 11번홀에서 첫 보



기를 범한 배상문은 13번홀부터 4개홀 연속 버디를 뽑아냈으나 17번홀 보기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고이치로는 17번홀까지 보기없이 3개의 버디를 잡아낸 뒤 18번홀(파5)에서 친금의 이글을 잡아내며 배상문을 연장전에 이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올들어 8월 KBC오거스타에서 JGTO 첫 승을 올린데 이어 10월엔 도카이클래식과 일본오픈에서 승수를 추가했다. golfahn@

가르시아, 2주연속 정상 EPGA 안달루시아 마스터스

스페인의 골프영웅 세르히오 가르시아(사진)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정상에 올랐다. 가르시아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소



토그란데의 발데라마GC (파71·6988야드)에서 열린 안달루시아 마스터스 4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쳐 합계 6언더파 278타를 쳐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golfahn@

어떠한 조건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단 한 가지!

SINOMA GOLF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가치! Handmade 名品수제골프화

- 100%천연소가죽/편안한골프화/안정된라운딩/100%방수
- 2중내피사용으로 견고한 내구성/한국인 체형에 맞추어 뒤틀림방지
-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황토성분과 항균베드사용

- 40년간 오직 수제화만을 연구하고 제조한 기업
- 최고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 골프화, 신사화, 기능성화, 등산화등등 각종 맞춤 수제화 제작가능

모델명 : SMG-3038
색상 : BROWN
사이즈 : 250~275mm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려겠습니다.

(주)앤제화/시노마골프 www.sinoma.co.kr | 쇼핑몰 www.starup.co.kr

고객만족센터 1599-9023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당신을 위한 자동차를 생각합니다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기술, 현대모비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기술이 보입니다



driving science